中世語의 한글資料에 대한 綜合的인 考察

安 秉 禧*

《차 례》

Ⅰ. 序言
Ⅱ. 目錄과 解說
Ⅲ. 餘 言

Ⅰ. 序 言

國語史 資料에 대한 斷片的인 紹介와 研究는 상당히 있었지만, 그 全般的인 調査와 記述은 解放 이전의 增訂朝鮮語學史(小倉進平著, 1940)와 한글갈(崔鉉培著, 1942)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解放 이후 새로 나타난 資料가 質과 量에서 상당한 것임을 생각할 때, 위의 著述에서 행해진 記述이 얼마나 不完全한 것인가는 너무나 명백하다. 國語史 研究의 基礎作業이라 할 이 資料에 대한 綜合的인 調査와 整理는 매우 時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이 일의 一環으로서 國語史에 관한 典籍資料 중에서 한글로 된 中世語의 典籍을 對象으로 하여 그 所在를 調査하고 書誌事項과 資料로서의 價値 등을 밝히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國語史 研究가 中世語를 中心으로 행하여졌다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므로, 또 近代語 資料의 거의 折半이 中世語 資料의 重刊이므로 이 글은 國語史 資料의 綜合的인 調査와 整理作業의 基盤이 되리라 믿는다.

이리하여 已往의 關聯業績과 藏書目錄書를 中心으로 中世語의 한글 典籍의 豫備調査를 행하였다. 이를 土臺로 國內의 公共圖書館과 個人收藏家의 所藏 典籍에 대하여는 實地調査를 행하고 資料를 蒐集하게 되었다. 國外의 典籍은 1973年 가을부터 1975年 봄에 걸친 日本과 臺灣에서의 우리의 調査와 다른 분들에 의한 報告書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明記가 없는 한, 모든 記述은 우리의 實地調査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글의 內容은 現存하는 中世語의 한글 典籍을 總網羅한 目錄을 提示하고, 그 典籍에 대한 解說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目錄의 典籍의 配列은 編著 내지 原刊의 年代를 基準으로 하여 年代順으로 한다. 重刊本인 경우에도 原刊本의 刊年에 따라 配列하게 되었다. 다만 重刊本만 現存하면서, 그 最古의 重刊本이 書名에 重刊이라 明示하거나 內容이 사뭇

*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語國文學 科敎

달라진 경우에는 重刊의 年代를 基準으로 하였다. 그밖에 年代未詳인 典籍은, 그 形態와 담겨진 國語資料의 性格에 따라 推定된 年代에 의하여 配列하게 되었다.

Ⅱ. 目錄과 解說

1. 訓 民 正 音

世宗이 訓民正音, 곧 한글을 創制하고 百姓에게 頒布한 책이다.[1] 1446年(世宗 28)에 原刊되었는데, 內容은 世宗의 御製序와 새 文字의 간략한 解說의 本文과 集賢殿學士들에 의한 解例와 鄭麟趾의 解例序로 되어 있다. 이러한 本文과 註釋의 關係는 解例와 解例序가 1面 8行, 1行 13字인 데 대하여 本文이 7行, 1行 11字인 行款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解例가 있음이 特徵이므로 보통 解例本이라고 불리어진다.

解例本의 原刊本은 1940年 慶北 安東에서 발견되어 潤松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첫 2張이 落張인데, 發見 當時 補寫되었다. 이 책이 原刊本인 점에 대하여는 甲寅字本이 아니라 하여 懷疑的인 意見도 있다.[2] 그러나 上下가 下向黑魚尾인 版心이나 한글字體로 보아, 다른 어떤 한글文獻보다도 가장 빠른 資料다. 紙質이 國立中央圖書館의 釋譜詳節과 같은 점으로도 15世紀 中葉의 刊本임에는 의심할 餘地가 없다. 그런데 이 책의 漢字音과 그 旁點의 表記가 東國正韻에 위배된다. 刊年과 관련하여 해석할 것이 아닌가 한다.

訓民正音은 위의 解例本 이외에 諺解本(註釋本 또는 國譯本)이 있다. 현재 月印釋譜의 卷頭에 실려 전한다. 原刊本의 本文을 번역한 것이다. 齒頭正齒音의 規定이 추가되고 內題인 「世宗御製訓民正音」이 있는 張1에 若干의 變改가 있은 것으로 보인다. 齒頭正齒音의 追加는 위의 原刊本보다 이 책이 늦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張1의 變改는 이 月印釋譜보다 앞선 책에 諺解本이 실려 있었음을 말한다. 지나친 推論은 禁物이지만, 月印釋譜가 月印千江之曲과 釋譜詳節의 合編이므로 釋譜詳節의 卷頭에도 이 諺解本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예컨대 「글월(文), 一긔」 등, 諺解本의 特徵的인 言語事實이 釋譜詳節의 그것과 합치함도 이를 뒷받침한다.

諺解本의 原刊本은 西江大圖書館과 六堂文庫(高大 亞細亞問題硏究所)에 소장되어 있다. 六堂文庫本은 單行本으로, 故朴勝彬씨 舊藏本인데 張1이 補寫되고 張2 以下도 部分的으로 補寫되었다. 補寫部分을 제외하면 紙質은 물론이고 印面의 字樣, 版式의 細部까지 西江大

(1) 이 資料에 대한 것은 다음을 참조할 것.
安秉禧, 訓民正音의 異本, 震檀學報 42號(1976).

(2) 최근 任昌淳선생에 의하여 發見된 1448年(世宗 30, 正統 13)版 法華經의 安平大君跋에 나타난 安平大君의 글씨와 이 解例本의 글씨는 완전한 一致를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의 解例本이 原刊本일 수 있다고 하겠다.

學本에 일치한다. 따라서 月印釋譜의 卷頭에서 분리하여 따로 製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밖에 諺解本의 重刊本은 1572年(宣祖 5)의 喜方寺 覆刻本 月印釋譜로써 널리 알려져 있다.

訓民正音의 影印은, 解例本이 1946年 한글학회(當時 朝鮮語學會), 諺解本의 완전한 原刊이 1972年 西江大 人文科學硏究所, 落張인 原刊本과 그 重刊本이 1932年 啓明俱樂部에서 처음 행해진 것을 비롯하여 누차에 걸쳐 여러 곳에서 刊行되었다.

2. 龍 飛 御 天 歌

朝鮮王朝의 建國을 읊은 노래와 그 註釋을 실은 책이다. 太祖의 4代祖인 穆祖로부터 太宗까지 化家爲國의 事蹟을 읊은 125章의 한글 歌詞와 그 譯詩를 本文으로 하여, 各章마다 註解를 덧붙여서 만든 것으로, 모두 10권 5책이다. 처음 權踶, 鄭麟趾, 安止 등이 1445年(世宗 27)에 本文을 만들었는데, 世宗이 다시 崔恒, 朴彭年, 姜希顔등에게 註解를 덧붙이게 하여 1447年에 刊行한 것이다.

현재 原刊本으로 보이는 책은 서울大 圖書館의 가람文庫와 奎章閣圖書에 소장되어 있다. 前者는 卷 1,2의 1책인데, 初刷本으로 가장 좋은 版本이다. 內賜本이어서 宣賜之記란 印記는 있으나, 內賜記가 없음이 유감이다. 後者는 複本인데, 한 책은 卷 5,6의 제 3 책이 없다. 다른 책의 제 3 책도 가장자리가 불탄 흔적을 갖고 있을 뿐아니라, 그나마 끝 部分이 不完全하다. 그런데 後者는 애초에 심하게 훼손된 册板을 이용하여 된 後刷本이다. 字畫의 磨滅이 심하고, 印面에 空白 部分도 나타나며, 때로는 補刻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의 利用에는 세밀한 注意를 요한다. 이밖에 같은 系統의 책인 卷 1,2와 5~10 4책이 高麗大圖書館 晩松文庫에 있다.

重刊本은 1612年(光海 4), 1659年(孝宗 10), 1765年(英祖 41)의 刊本이 있는데, 1612年版은 原刊本의 覆刻, 1659年版은 그 覆刻인 1765年版과 함께 字體가 原刊本과 사뭇 다르게 된 책이다. 現代의 複製本은 1612年版을 底本으로 하여 1937~8年(奎章閣叢書 4,5.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과 1972年(亞細亞文化社)에 影印으로 刊行되었다.

그런데 龍飛御天歌의 한글 歌詞와 漢詩는 世宗實錄 樂譜(卷 136~47) 중 卷 140~45에 실려 있다. 現存하는 壬辰亂 이전의 實錄은 서울大圖書館의 鼎足山本뿐인데, 이것은 1472年(成宗 3)에 완성된 것이라 한다.[3] 實錄의 이 部分은 印本이 아니라, 寫本이어서 상당한 誤字가 있다. 그 誤字에는 合字法에 어긋나는 것이 있어서 한글 普及의 一面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것은 어떻든 卷146의 鳳凰吟과 함께 특이한 資料가 된다.

이 龍飛御天歌는 國文學과 國史硏究에도 이용되지만, 한글 歌詞와 註解 속에 나오는 固有名詞와 官職名의 한글表記로써 國語史 資料로 소중하다. 특히 한글 創制 이후의 最初 文

(3) 申奭鎬, 朝鮮王朝實錄의 纂編과 保管, 韓國史料解說集(1964) 참조.

獻으로서 그 價値는 크다.

3. 釋 譜 詳 節

世宗의 命에 따라 首陽大君(뒤에 世祖)이 昭憲王后의 冥福을 빌기 위하여 著作한 釋迦의 一代記다. 首陽大君의 序文에 의하면 釋迦譜를 먼저 만들고 그것을 諺解한 것이라고 하나, 다른 諺解書와는 달리 原文이 없고 또 文體도 諺解文과 같지 않다. 原刊의 年代는 序文年代인 1447年(世宗 29)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原刊本은 零本으로 전하는데, 國立中央圖書館에 卷 6, 9, 13, 19, 東國大圖書館에 卷 23, 24가 그것이다. 특히 前者의 4책은 墨書로 校正까지 되어 있어서, 이 책 刊年의 推定에 중요한 根據가 되고 있다. 後者는 校正은 없으나, 內容으로 보아 卷24가 이 책의 마지막 卷임을 추정하게 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책의 原刊本은 24권인데, 그 중 6권만이 전하는 셈이다. 이 책의 重刊本은 卷11 1책이 沈載完교수 所藏으로 전한다. 刊記가 없으나, 刊記張의 殘字와 合綴된 八相圖의 施主名 등에 따르면 1560年(明宗 15) 前後의 全羅道 無量寺의 刊行으로 믿어진다. 그런데 이 때의 重刊이 月印釋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全帙에 걸친 것이 아니라, 卷11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 한다. 釋譜詳節을 수정한 月印釋譜가 있는데(이 무렵 無量寺에서는 月印釋譜 卷21, 23을 重刊하였다), 釋譜詳節을 새삼스럽게 모두 重刊할 必要가 없었기 때문이다.(4)

이 釋譜詳節은 한글로 표기된 最初의 散文資料로서 國語史硏究에서 중요한 位置를 갖고 있다. 또한 甲寅字인 漢字와 함께 쓰인 한글活字로써 書誌學의 硏究에도 귀중한 資料가 된다. 그리하여 影印本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다. 즉, 卷 6, 9, 13, 19는 한글 111~125호(1955~1959)에 차례로 影印 收錄되고, 다시 單行本으로 1961年 한글학회에서 간행되었다. 卷23, 24는 1969年, 重刊本인 卷11은 1959年 大邱에서 간행되었다. 그런데 卷6, 9, 13, 19의 影印에서 原典의 校正이 삭제 되었으므로, 影印本의 利用에는 각별한 注意를 요한다.

4. 月 印 千 江 之 曲

首陽大君이 지어 올린 釋譜詳節을 보고 世宗이 몸소 釋迦의 功德을 칭송하여 지은 책이다. 모두 500餘曲의 노래로 되었는데, 3권에 나뉘어 있다. 原刊은 釋譜詳節과 꼭같은 活字로써 같은 時期인 1447年(世宗 29)에 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卷上이 陳鉗洪씨 所藏으로 온전히 전하고, 卷上과 卷中의 落張이 國立中央圖書館 소

(4) 無量寺版 釋譜詳節을 비롯하여 釋譜詳節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安秉禧, 釋譜詳節의 校正에 대하여, 國語學 2號(1974).

장의 釋譜詳節에 끼어 전한다. 이 책이 單獨으로 重刊된 일은 없으나, 月印釋譜에 編入되어 刊行되었다. 原刊本과의 對照에 의하면, 이 때 釋譜詳節보다는 심하지 않으나 歌詞의 修正과 註釋의 添加가 행하여진 것을 보게 된다.

月印千江之曲은 한글로 표기된 韻文으로서는 龍飛御天歌 다음가는 最古의 資料다. 특히 表記에 있어서 한글 爲主로 하여, 漢字를 夾註로 표기한 점은 最初의 例다. 또 表記에서 語源을 의식하여 語幹과 複合語에서 基本形을 밝히려고 한 事實은 龍飛御天歌와 이 책의 特徵이다. 이러한 점으로써 月印千江之曲은 國語史資料가 되지만, 國文學과 書誌學의 硏究資料로도 귀중하다. 原刊本 卷上은 1961年 通文館에서 原尺으로 影印되었고,[5] 國語學 1號(1962)등에도 影印 收錄되었다.

5. 東 國 正 韻

世宗의 命令으로 申叔舟, 崔恒, 成三問 등이 편찬한 韻書다. 당시의 우리나라 傳承漢字音이 中國韻學의 體系로 보아 상당히 혼란되어 있었으므로, 당시의 傳承漢字音을 바탕으로 하되 中國韻學의 體系에 맞추어 整理한 것이 이 책이다. 모든 收錄字를 韻에 따라 分類하고, 그 안에서 平上去入의 順序로 나열하는 方式으로 編纂되어 있다. 원래 申叔舟의 序文에 의하면 1447年(世宗 29)에 편찬되었으나, 실지로 刊行된 것은 그 이듬해인 1448年의 일이다.

이 책은 失傳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1940年 安東에서 卷1,6 零本 2책이 발견되어 澗松文庫所藏으로 보존되어 있고, 1972年에는 全帙이 나타나서 建國大所藏으로 있다. 內賜本(內賜記는 없음)인 澗松文庫本은 1958年 서울大大學院, 建國大所藏本은 1972年(縮刷本은 1973年) 同大學校出版部에서 影印으로 출판되었다.[6]

이 책에서 규정한 漢字音은 한글創制 이후 모든 文獻의 漢字音表記에 적용되었으나, 傳承音과 상당한 距離가 있었기 때문에 15世紀末부터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漢字音이 人爲的으로 정리되었지만 당시의 漢字音硏究에서 基本資料가 되고 있다. 또한 韻의 代表字音을 표기한 한글은 訓民正音의 한글字形과 완전한 一致를 보이고 있어서 字形變遷에 있어서 중요한 資料가 된다.

6. 舍 利 靈 應 記

世宗이 內佛堂과 佛像을 造成하자 희구하던 舍利의 出現 祥瑞가 있음을 기록한 책이다.

(5) 影印本에는 南廣祐교수의 解題가 있다.
(6) 서울大大學院刊行의 책에는 李崇寧선생의 解題가 있다. 東國正韻의 編纂과 內容등에 관한 綜合的인 說明이 행해져 있는 것이다.

金守溫의 記錄인데, 「上之30有1年 秋 7月 19日 癸卯云云」의 文面과 金守溫의 官職으로 미루어서 1449年(世宗 31)頃의 刊行으로 보이는 甲寅字本이다. 책 끝에 이 일에 참여한 信眉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이름을 「精勤入場人名」이라 적었는데, 그중 「韓실구디, 朴검동」 등 한글로 表記된 人名이 약 50 나타난다. 이것이 固有語의 人名 硏究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7) 또한 그 한글 活字가 釋譜詳節등의 그것과 일치하는 점에서 書誌學硏究에도 중시된다. 현재 東國大 圖書館과 高大亞細亞問題硏究所 六堂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7. 洪 武 正 韻 譯 訓

明나라 韻書인 洪武正韻(1375刊, 洪武 8)에 한글로 表音한 책이다. 洪武正韻의 體裁를 거의 그대로 두고서, 그 反切을 分類 整理해서 얻은 31聲母의 字母를 각 小韻의 代表字 앞에 표시하고, 또 그 字母와 代表字와의 사이에 그 小韻의 字音을 한글로 표시하고, 때로는 代表字 밑의 反切 다음에 그 俗音, 즉 당시의 中國北方音을 표시하여 편찬하였다. 世宗의 命令을 받고 申叔舟등이 10여年에 걸쳐 編纂하여, 1455年(端宗 3) 刊行하였다.

原刊本은 16권 8책의 活字本인데, 高麗大圖書館 華山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나, 卷 1,2 1책만 없다. 이밖에 高麗大圖書館 晩松文庫에 卷9, 延世大圖書館에는 卷3,4 1책이 소장되어 있다. 高麗大 華山本은 1974年 高麗大出版部에서 影印하였다.

이 책은 中國字音을 表音文字인 한글로 기록한 점에서 中國音韻史 硏究에 이용될 수 있다. 한편 木活字로 印刷된 한글은 旁點과 •까지 圈點에서 點劃으로 바뀌어서 月印釋譜 이후의 文獻에서 그대로 답습되었다. 이런 점으로 이책은 한글字形의 變遷과 活字의 硏究資料도 된다.

8. 月 印 釋 譜

世祖가 月印千江之曲과 釋譜詳節을 合編하여 1459年(世祖 5)에 刊行한 책이다. 合編의 方式은 龍飛御天歌에 따라서 月印千江之曲을 本文으로 하고 釋譜詳節을 註釋으로 한 것이다. 合編에 있어서는 調卷과 文章에 상당한 變改를 가하였다. 調卷을 보면, 釋譜詳節 卷11과 19의 內容이 각각 月印釋譜 卷21과 18에 나타나고, 같은 卷13이 釋譜詳節은 法華經 卷1, 月印釋譜는 卷2와 3의 內容을 보이는 등등, 卷11부터 卷次가 달라져 있다. 文章의 경우, 月印千江之曲은 漢字와 讀音의 位置, 漢字音 終聲 ㄷ, 夾註의 追加 등 部分的 變改와 曲次의 變動이 있으나, 釋譜詳節은 大幅的인 添削이 있었다. 그러므로 月印釋譜는 전혀 새로운 資

(7) 한글 表記의 人名을 비롯하여, 이 책에 관한 書誌的인 事項은 다음에 자세하다.
安秉禧, 初期 한글表記의 固有語人名에 대하여, 언어학 2 (1977).

料가 된다.

全帙은 24권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현재 零本으로만 전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原刊本과 所藏者는 다음과 같다.[8]

卷 1・2: 西江大圖書館(1972年 同大學 人文科學硏究所 影印).

卷 7・8: 某氏.

卷 9・10: 故梁柱東선생舊藏(1956年 延世大 東方學硏究所 影印).

卷13・14: 延世大圖書館.

卷17・18: 江原道 洪川 壽陀寺(1957 東方學硏究所 影印), 全羅南道 長興 寶林寺 (卷17만 所藏. 壽陀寺本의 卷 17 落張部分만 1972年 한글 150號에 影印).

卷23 : 某氏.

이 책은 全帙이 覆刻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部分的으로 地方寺刹에서 16世紀에 覆刻되었다. 현재 전하는 重刊本을 刊年順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1542年(中宗 37) 安東 廣興寺版 卷21: 解放 以前의 後刷本도 있음.

1559年(明宗 14) 淳昌 無量崛版 卷23: 延世大 圖書館소장. 1963年 東方學志 6輯에 影印.

1562年(明宗 17) 淳昌 無量崛版 卷21: 延世大圖書館 및 沈載完교수 소장.[9]

1568年(宣祖 1) 豐基 喜方寺版 卷1・2: 册板이 6・25 以前까지 保存되어 現代의 後刷本도 있음. 卷1은 1960年 國語學會에서 古典選叢에 影印.

1569年(宣祖 2) 忠淸道 寒山地 竹山里 白介萬家刻本(册板은 恩津 雙溪寺留置) 卷21: 册板이 公州甲寺에 現存(缺張있음)하여 近者의 後刷本도 있음.

1572年(宣祖 5) 豐基 毘盧寺版 卷 7・8: 卷7은 慶北 義城郡의 某氏, 卷8은 서울大圖書館일사文庫의 소장. 前者는 1968年 東岳語文學會에서 影印, 後者는 所在不明인 卷7과 함께 宋錫夏 靑寫眞本의 底本인데, 그 靑寫眞本을 1957年 東方學硏究所에서 影印.

15—年 卷8,23: 16世紀中葉의 覆刻으로 보이는 重刊本인데, 卷8은 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六堂文庫, 卷23은 誠巖文庫 소장. 卷23은 保存狀態가 나빠서 版心題가 마멸되었으나, 月印千江之曲의 曲次로 보아 卷23으로 보임.[10]

---

(8) 月印釋譜에 대하여는 많은 論著가 있다. 특히 다음의 여러 影印本에 있는 解題를 참조할 것이다. 그런데, 原刊本 卷7,8과 23에 대한 것은 다음 論文에 의한다,
千惠鳳, 새로 發見된 初槧本 月印釋譜 卷第七・八, 現代史學의 諸問題 (1977).

(9) 이 刊本은 다음 글에 의한다.
沈載完, 月印釋譜 第二十一異本考, 論文集(靑丘大學) 5輯 (1962).

(10) 金英培교수가 卷23으로 發表한 일 (1975年 6月의 국어국문학 제18회 전국대회)이 있으나, 千惠鳳교수(上註8을 참조)가 卷22로 修正하였다. 月印釋譜 卷21의 月印千江之曲이 其429로 끝나고, 이 殘卷은 其480(10b)에서 其494(20a)를 갖고 있기 때문에 卷23의 앞 部分이 옳다고 하겠다.

月印釋譜는 釋譜詳節과 함께 正音創制 直後의 散文資料로서 귀중하다. 重刊本이라 하더라도 보기 드문 理由만이 아니라, 國語史資料로서 갖는 價値 때문에 더욱 소중한 文獻이 된다.

9. 楞 嚴 經 諺 解

宋나라 溫陵 戒環이 要解한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普薩萬行首楞嚴經(略稱：大佛頂首楞嚴經, 楞嚴經)을 世祖가 한글로 口訣을 달고 韓繼禧, 金守溫 등이 慧覺尊者 信眉의 도움을 받으면서 飜譯한 책이다. 世祖, 信眉, 金守溫 등의 跋에 의하면 원래 1449年(世宗 31) 世宗의 命令으로 世祖가 飜譯에 착수하였으나, 미루어지다가 1461年(世祖 7) 5月 釋迦의 分身舍利 100餘枚가 나타나는 祥瑞가 있게 되자 두어 달만에 飜譯을 마치고 이해 10月 校書館에서 活字(乙亥字)로 400部를 刊行한 것이다. 모두 10권 10책이다.

그러나 서둘러 刊行된 이 活字本에는 상당한 誤謬가 있었기 때문에, 곧 수정하여 木版本으로 이듬해인 1462年 刊經都監에서 刊行하였다.[11] 여기에는 刊經都監 都提調 桂陽君瑨의 箋(1462年 8月 21日字)과 雕造官인 刊經都監 都提調 이하의 列銜이 있다. 이리하여 이 木版本이 楞嚴經諺解의 定本이 되었다. 이때 活字本은 大部分을 거두어서 朱墨으로 校正하거나 印刷한 쪽지(주로 卷末의 「音釋」 部分)를 덧붙임으로써 木版本과 統一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12] 現傳 活字本이 모두 그러한 修正을 갖고 있다.

현재 活字本은 卷3, 4만 전하지 않는다. 現存本의 그 所藏處는 다음과 같다.

卷 1： 誠巖文庫

卷 2： 서울大圖書館.

卷 5： 서울大 가람文庫, 日本天理圖書館.

卷 6： 日本天理圖書館.

---

(11) 乙亥字本을 1461年 10月에 刊行된 것으로 보는 理由는 金守溫跋(1461年 10月日字)의 다음 句節에 있다.

於是親定讎校 質諸信眉等名僧 旋下校書館隨即模印 始於是年六月 至於十月而事已成矣

그런데 1461年 6月에 設置된 刊經都監에서 即時 佛經刊行에 着手하여 그해에 이미 大般涅槃經義記圓旨鈔, 金剛經疏開玄鈔등을 刊行하였으나, 諺解本은 이보다 늦은 것으로 보아야 할 듯, 首葉前面에 校正의 印記를 가지고 완전한 모습으로 保存된 活字本 卷1에는 木版本의 箋과 雕造官列銜이 없다. 따라서 活字本은 刊經都鑑과 무관하게 刊行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木版本만을 刊經都監版으로 다루기로 한다. 刊經都監과 그 刊經事業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江田俊雄, 李朝刊經都監と其の刊行佛典, 朝鮮之圖書館 25號(1936). (朝鮮佛教史の研究, 1977 所收)

(12) 이러한 朱墨校正이 모든 活字本에 걸쳐서 행해진 것은 아니다. 다른 活字本보다 用紙가 더 좋고 '校正'의 印記까지 갖는 卷1에는 전혀 朱墨의 흔적이 없다.

卷 7,8 : 東國大圖書館,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卷 9 : 金亨奎,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卷10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木版本은 埋木, 또는 補印에 의한 佛敎用語의 漢字讀音 表記에서의 修正, 예컨대 阿難의 阿가 「항」에서 「함」로 되고 안 되는 데서 보이는 差異가 있으나,[13] 1464年版에 의한 印出本이 상당히 많이 전하고 있다. 서울大와 東國大의 圖書館에 있는 全帙이 그 代表的인 例다. 특히 東國大本은 題簽까지도 印出 當時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底本으로 한 影印本이 1959年 東國大에서, 다시 1977年 大提閣에서 刊行되었다.

木版本인 楞嚴經諺解는 刊經都監에서 刊行된 최초의 佛經諺解이기 때문에, 뒤에 나온 刊經都監의 佛經諺解書에 대하여 책의 形態는 물론이고, 飜譯樣式과 正書法에 걸쳐 規範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매우 중요한 資料가 된다.

10. 法 華 經 諺 解

溫陵 戒環이 要解하고 一如가 集註한 妙法蓮華經(略稱 : 法華經)에 世祖가 口訣을 달고 刊經都監에서 飜譯을 붙여 刊行한 책이다. 모두 7권, 原刊은 1463年(世祖 9)으로 추정된다. 卷首에 刊經都監 都提調 尹師路의 箋(1463年 9月 2日字)과 都提調이하 雕造官의 列銜이 있기 때문이다. 책의 體裁와 飜譯樣式 등은 전적으로 木版本 楞嚴經諺解에 일치하고 있다.

현재 많은 책이 전하고 있으나, 原刊本으로 보이는 책은 매우 드물고, 大部分이 覆刻本이다. 印墨, 紙質 등이 가장 좋은 原刊本은 欄上에 註(卷1, 182b)까지 갖고 있는데, 落張이 있으나 全帙이 전한다(任昌淳선생 所藏). 그러나 이 책도 初刷本은 아닌 듯, 每卷 첫머리 內題 다음의 編著者 記名行 중 原典의 編著者名만 있고 譯者名의 行은 비어 있기 때문이다.[14] 紙質 등으로 미루어서 1472年(成宗 3)에 印出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밖에 原刊本은 서울大圖書館, 誠巖文庫 등에 전한다.[15] 覆刻本은 版心題를 略字로 표시하는 등 조잡하기는 하나, 飜譯은 原刊本대로 되어 있으므로 原刊本과 동일한 資料로 다루어도 무방하다.

---

(13) 이러한 補印에 대한 論議는 註4의 글을 참조.

(14) 刊經都監刊行의 諺解書의 譯者와 口訣作成者의 記名을 削除한 것은 1472年(成宗 3) 金守溫跋, 1495年 學祖跋을 가지고 印出된 圓覺經, 蒙山法語(이상 金守溫跋), 永嘉集, 金剛經, 心經에 모두 共通된다. 永嘉集, 金剛經, 心經등에서는 刊經都監 당시의 跋文까지 削除되어 있다. 이러한 事實은 刊經都監이 廢止된 狀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어떻든 佛經諺解書의 譯者記名行의 空白이 印出年代 推定에 유력한 基準이 됨은 움직일 수 없다.

(15) 誠巖文庫本은 卷 2 上·下, 3,4,7의 5책인데 世祖朝의 高僧인 學悅手澤本이다. 內題 다음에 「學/悅」(朱文方印)의 印記가 있다. 그리고 卷 2 上을 제외한 나머지 책은 모두 包背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裝訂의 歷史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資料가 된다. 이러한 包背裝은 이밖에도 楞嚴經諺解木版本 卷 2(任昌淳선생 所藏)와 卷 4(가람文庫 所藏)가 있다. 後者는 誠巖文庫本과 마찬가지로 學悅의 印記를 갖는 그의 手澤本이다.

알려진 有刊記 覆刻本은 1523年(中宗 18), 1545年(仁宗 1), 1547年(明宗 2)의 刊本이다. 原刊本과 이들 重刊本을 모은 全帙을 1960年 東國大에서, 다시 이것을 1977年 大提閣에서 影印하였다.

그런데 體裁와 內容이 전혀 다른 重刊本이 있다. 國立中央圖書館 소장의 卷1,2의 2권 2책과[16] 誠巖文庫의 卷4 1책이 그것인데, 卷2의 끝에 「弘治 13年庚申(1500, 燕山 6) 9月 日刊」이란 刊記와 大部分이 王子와 妃嬪, 尙宮인 施主秩이 있다. 1500年 宮中의 施主로 刊行된 것임을 알려 준다. 內容은 原刊本에서 註釋文을 삭제하고, 本文만을 翻譯한 것이다. 翻譯은 原刊本의 것과 같으나, 各自並書의 癈棄와 漢字音表記에서의 東國正韻式의 止揚 등 差異가 있다. 따라서 이 資料는 原刊本과는 구별하여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11. 禪宗永嘉集諺解

唐나라 永嘉玄覺의 禪宗永嘉集에 宋나라 行靖이 註를 달고 淨源이 科門을 修定한 것을 諺解한 上下 2권 1책의 책이다. 世祖가 한글로 친히 口訣을 달고, 慧覺尊者 信眉등이 翻譯하여, 1464年(世祖 10) 刊經都監에서 刊行하였다. 첫머리에 刊經都監都提調 黃守身의 箋(1464年 1月 5日字)과 黃守身 이하 刊行關與者의 列銜이 있고, 끝에 信眉와 孝寧大君의 跋이 있다.

현재 알려진 原刊本은 卷上이 東國大圖書館, 卷下가 서울大圖書館 일사文庫에 있다. 原刊本의 冊板으로 1495年(燕山 1) 印出한 책(卷下 零本 1冊)이 東國大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그 卷末에 木活字로 된 學祖의 跋文이 있다. 重刊本으로는 1520年(中宗 15) 慶尙道 長水寺에서 原刊本을 覆刻한 책이 있다. 冊板이 낡았으나 아직도 보존되어 있어서, 近者의 後刷本까지 유포되고 있다.

12. 阿彌陁經諺解

阿彌陁經은 佛說阿彌陁經의 略稱인데, 淨土三部經중의 하나로서 一切諸佛所護念經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護念經, 彌陁經이라고 한다. 여기에 한글로 口訣을 달고 翻譯한 것이 이 책이다. 內題 다음에 「御製譯解」, 책끝에 「天順八年(1464, 世祖 10) 甲申歲 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라 있으므로, 世祖가 번역하여 1464年 刊經都監에서 刊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의 諺解文은 月印釋譜 卷7에 나오는 釋譜詳節 部分과 거의 합치한다. 御製譯解라 한 것은 이것과 연관된 일로 보인다.

---

(16) 이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安秉禧, 改刊法華經諺解에 대하여, 東方學志 12輯(1971).

原刊本은 현재 전하지 않고, 壬辰亂 이전 重刊本은 1558年(明宗 13) 全羅道 德龍山 雙溪寺에서 覆刻된 책(東國大圖書館, 趙明基교수 所藏)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壬辰亂 이후의 重刊本은 數種이 전한다. 그중의 하나를 底本으로 한 影印本이 1958年 正陽社에서 佛頂心經과 함께 影印되었고, 이것이 다시 1974년 亞細亞文化社에서 影印되었다.(17)

최근 乙亥字本 阿彌陀經이 발견되어 誠巖文庫에 收藏되었다. 活字가 活字本 楞嚴經諺解와 같으나 한글 活字로 中·小字 2種이 쓰인 점에서 活字硏究에도 귀중한 資料가 된다. 木版本에 보이는 刊記가 없어서 刊年未詳의 책이다. 內容은 위의 木版本과 대체로 일치한다. 口訣의 旁點表記, 「般若, 解脫」 등 佛敎用語의 漢字讀音과 諺解 「범그러둘어이실씨」(6a. 둘어이실씨 木版本 7a)가 다를 뿐이다. 佛敎用語의 漢字讀音으로 미루어서 楞嚴經諺解의 木版本보다 앞선 것이 아닌가 한다.(18)

13. 金 剛 經 諺 解

金剛般若波羅蜜經, 또는 金剛經六祖解諺解의 略稱이다. 金剛經의 經本文과 六祖 惠能의 口訣에 한글로 口訣을 달고 翻譯한, 上下 2권으로 分册된 책이다. 口訣은 世祖, 翻譯은 韓繼禧, 校正은 孝寧大君, 海超등이 담당하여 1464年(世祖 10) 刊經都監에서 刊行한 것이다. 刊經都監 都提調 黃守身의 進金剛心經箋(1464年 4月 7日字)과 孝寧大君, 海超, 金守溫 등의 跋文과 翻譯廣轉事實(金剛經事實)에 그 刊行經緯가 소상하다. 箋 뒤에는 黃守身 등 刊行關與者가 列記되어 있다.

현재 原刊本 系統으로서는 1495年(燕山 1)에 印出된 책(林熒澤교수 所藏)이 가장 좋고 완전하다.(19) 책 뒤에 木活字로 된 學祖의 跋文이 있다. 이와 비슷한 卷下 零本 1책이 서울大圖書館 일사文庫에 있다. 8·15解放 직후에 이와 같은 系統의 卷上 1책을 底本(原所藏者未詳)으로 한 石版本이 刊行되었으며, 이 石版本을 底本으로 한 影印本이 1977年 大提閣에서 간행되었다.

原刊本을 覆刻한 重刊本이 1575年(宣祖 8) 全羅道安心寺에서 刊行되었다. 그 册板이 6·25事變 이전까지 보관되어 있었는데, 1932年 故韓龍雲씨가 補修하여 印出하였다. 널리 流布되었으나, 補板이 있으므로 利用에 注意를 요한다.(20)

---

(17) 여기에는 李熙昇선생의 解題가 있어, 利用에 큰 參考가 된다.

(18) 이 책은 刊經都監 國譯本 刊行에 새로운 問題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問題와 함께 보다 자세한 紹介는 따로 행할 豫定이다.

(19) 이 책에는 跋과 翻譯廣轉事實이 削除되어 있다. 印出當時의 時代的 狀況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前註14 참조.

(20) 金剛經諺解, 圓覺經諺解등, 册板의 發見 經緯와 補板 印出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韓龍雲, 國寶的 한글經板의 發見經路, 佛敎 89 (1931).
韓龍雲, 한글經 印出을 마치고, 佛敎 103 (1933).

14. 般 若 心 經 諺 解

心經諺解라고도 하는데,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顯正記諺解의 略稱이다. 唐나라 法藏의 般若心經略疏에 대한 宋나라 仲希의 注解本에 한글로 口訣을 달고 翻譯한 單卷의 책이다. 1464年(世祖 10) 金剛經諺解와 동시에 刊經都監에서 刊行된 책이므로, 刊經都監 都提調 黃守身의 進金剛心經箋과 刊行關與者의 列銜도 꼭같다. 世祖가 口訣을 달고 韓繼禧등이 翻譯한 것이다. 책뒤에는 金剛經과는 달리 韓繼禧의 跋文만 있다.

原刊本은 서울大圖書館 일사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金剛經諺解와 마찬가지로 1464年의 册板으로 1495年(燕山 1) 印出한 책이 故崔凡述씨의 所藏으로 전한다. 같은 해의 學祖의 跋이 있다. 前者는 1973年 一志社, 後者는 1975年 寶蓮閣에서 影印되었다.

重刊本은 原刊本을 覆刻한 것으로서, 1553年(明宗 8) 黃海道深源寺, 1464年(明宗 20) 全羅道淳昌無量寺에서 刊行된 책이다.

15. 上 院 寺 御 牒·同 重 創 勸 善 文

1464年(世祖 10) 慧覺尊者 信眉등이 上院寺를 重修할 때, 世祖가 그를 돕기 위하여 物資를 보내면서 쓴 글이 前者고, 이를 받고서 信眉등이 쓴 글이 後者다. 後者의 原名은 五臺山 上院寺 重創勸善文이다. 前者도 물론 勸善文인데, 각각 漢文 原文과 翻譯을 싣고서, 前者에는 世祖와 王妃, 世子와 世子嬪, 및 臣下들, 後者에는 信眉등의 手決과 朱印이 있다. 飜譯의 한글은 現存 最古의 筆寫本으로서 價値가 있다. 帖裝으로 江原道 月精寺에 소장되어 전한다. 이 資料는 朝鮮史 4-4 (1936)등 部分複製만 있었으나, 최근 月精寺에서 原寸으로 複製되었다. 그러나 原本과 다르게 된 곳도 있으므로 利用에 注意를 요한다.

16. 圓 覺 經 諺 解

圓覺經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略稱이다. 唐나라 宗密의 圓覺經大疏鈔에 世祖가 口訣을 달고 信眉, 孝寧大君, 韓繼禧 등이 翻譯을 하여 1465年(世祖 11) 刊經都監에서 刊行한 책이 이 圓覺經諺解다. 모두 10책인데, 上 1 之 1~2, 2 之1~3, 下 1 之1~2, 2 之 1~2, 3 之 1~2로 分卷되어 있다. 책머리에 刊經都監 都提調 黃守身의 箋(1465年 3月 19日字)과 黃守身, 朴元亨, 金守溫 등의 雕造官이 列記되어 있다.

현재 原刊本은 卷下 3之 1~2가 李崇寧선생 所藏으로 전한다. 原刊本의 册板으로 1472年(成宗 3) 印出된 책도 있다. 原刊本과 印面, 着墨, 紙質 등이 같으나, 卷頭의 內題 다음에

있는 「御定口訣／慧覺尊者臣信眉孝寧大君臣補仁順府尹臣韓繼禧等譯」의 2行이 空欄으로 바뀌어 있다. 또 책뒤에 活字로 된 金守溫의 跋(1472年 6月初吉字)이 있다. 卷上2之 1, 2之3 (田川孝三교수), 上2之2(서울大圖書館), 下2之2～3, 3之1～2 (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六堂文庫)등이 1472年의 印出本이다.[21] 重刊本은 1575年(宣祖 8) 全羅道 安心寺에서 覆刻한 책이다. 이 册板은 6·25事變前까지 保管되어 있었는데, 1932年 故韓龍雲씨가 약간의 補板을 하여 印出하였다.[22] 널리 보급된 것이다. 이 重刊本을 底本으로 한 影印本이 1977年 大提閣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의 版式과 翻譯樣式 등도 木版本 楞嚴經諺解에 준한다. 그러나 國語表記에서 ㆆ과 各自並書가 폐기된 것은 큰 變遷이다. 杜詩諺解등과 같아진 것이다.

17. 圓 覺 經 口 訣

圓覺經의 經文과 宗密의 疏鈔에 한글로 口訣을 달아 乙酉字로 刊行한 책이다. 口訣과 刊年에 대한 明記는 없으나, 乙酉字가 1465年(世祖 11) 圓覺經을 刊行하기 위하여 鑄造한 活字이며, 이 책의 口訣이 圓覺經諺解의 口訣과 일치하는 점에서 世祖가 口訣을 달아서 1465年 圓覺經諺解와 함께 刊行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原刊本은 國立中央圖書館 일산文庫(卷上1之1만 缺), 高麗大圖書館 晩松文庫(卷上1之1등)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것을 覆刻한 책이 서울大圖書館 가람文庫(卷上1之1)와 誠齋文庫(卷上1之 2, 上2之 1～3, 下3之 1～2)에 있다. 이 圓覺經口訣은 國語史資料일 뿐 아니라, 乙酉字本인 점에서 書誌學의 硏究資料로 중시된다.

18. 周 易 傳 義 口 訣

周易의 大文에 한글로 口訣을 단 책이다. 內題의 다음에 「康寧殿口訣」이라고 되었는데, 世祖實錄에 의하면 世祖가 친히 口訣을 확정한 것이다. 原刊은 實錄에 1466年(世祖 12) 周易口訣 頒布의 記事(2月乙未條)가 있으므로, 늦어도 그 해에 刊行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乙亥字로 된 原刊本은 零本으로, 卷20 1책이 國立中央圖書館 일산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을 覆刻한 책은 全帙 24권 12책이 日本의 宮內廳書陵部에 전한다. 紙質등으로 미루어서 覆刻本도 15世紀末에서 16世紀初에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口訣에는 旁點, 各自並書가 없고, △ㅇ은 정확하게 사용되어 있다. 口訣의 內容이 諺解本의 그것과도 差異를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은 國語史뿐 아니라 周易經典의 硏究資料가 된다.

(21) 그 年代 推定은 前註 14를 참조.
(22) 前 註20을 참조.

19. 周易傳義大全口訣

漢文本 周易傳義大全의 欄上에 한글로 口訣을 단 책이다. 口訣은 周易의 한 大文을 單位로 하여 1行 3字로 刻板하여 欄上 空白에 押印하였다. 그러므로 한 面이라도 大文이 다르면 着墨이 다르고 上邊과의 間隔도 고르지 않다. 그런데 口訣이 周易傳義口訣의 그것과 완전히 같다. 따라서 1466年 이후의 刊本으로 보인다. 그러나 紙質(藁精紙) 등에서 15世紀後半의 책이라 생각된다. 현재 卷16, 17 2권 1책이 日本의 宮內廳書陵部에 전한다.

20. 救急方諺解

中風 등 36종의 病名을 들고서 治療方文을 모은 2권 2책의 책이다. 方文마다 諺解를 실었는데, 原刊은 1466年(世祖 12) 6月의 「賜八道救急方各二件」(壬子條)이란 實錄記事에 따라서 1466年으로 추정된다.

현재 原刊本은 전하지 않고, 乙亥字本의 覆刻인 重刊本이 있을 뿐이다. 늦어도 16世紀 中葉에는 刊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重刊本은 日本의 蓬左文庫에 完帙, 가람文庫에 卷上이 전한다. 이들은 완전히 같은 版本으로서, 後者가 落張本임이 다를 뿐이다. 蓬左文庫本은 卷上이 한글 148號(1971), 卷下가 149號(1972)에 影印되었다. 그런데 이 책은 重刊本이지만 覆刻本이므로 15世紀의 資料로서 다룰 수도 있다. 東國正韻式 漢字音表記와 例外的이지만 ㅸ(수비 下 15a)의 使用이 그 證據라 하겠다.

21. 牧牛子修心訣

高麗 普照國師 知訥(號 牧牛子)의 修心訣을 諺解한 책이다. 卷末에 「成化 3年丁亥歲(1467, 世祖 13) 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란 刊記와 版下本 筆寫者인 安惠, 柳睆, 朴耕의 이름이 있다. 安惠등이 版下를 써서 1467年 刊經都監에서 刊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內題 다음에 2行에 걸쳐 「丕顯閣訣／慧覺尊者譯」이라 있으므로, 東宮便堂인 丕顯閣에서 口訣을 달고 信眉가 翻譯한 책이다.

原刊本 系統으로 보이는 책은 서울大圖書館 일사文庫와 日本東洋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重刊本은 1500年(燕山 6) 慶尙道 鳳栖寺에서 覆刻한 것이 있는데, 近來의 後刷本까지 있어 상당히 널리 유포되었다. 일사文庫本은 앞에 四法語가 合綴되어 있다. 이를 底本으로 한 影印本이 1973年 亞細亞文化社에서 출판되었다.

22. 蒙 山 法 語 諺 解

蒙山法語는 蒙山和尙法語略錄인데, 元末의 高僧인 蒙山의 法語를 高麗僧 普濟尊者가 抄錄한 것이다. 法語는 示古原上人, 示覺圓上人, 示惟正上人, 示聰上人, 無字十節目, 休休庵坐禪文의 6篇인데, 끝에 普濟尊者의 示覺悟禪人法語 1篇을 追加하여 한글로 口訣을 달고 飜譯한 책이 蒙山法語諺解다. 譯者는 內題 뒤에 慧覺尊者譯解라 있으므로 信眉라 하겠으나 刊記가 없으므로 刊年이 未詳이다. 重刊本에 合綴되어 있는 四法語가 1467年(世祖 13) 刊經都監 刊行의 牧牛子修心訣에도 合綴되어 있기 때문에, 同時의 刊行이 아닌가 한다.

原刊本은 趙明基, 李謙魯 諸氏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誠巖文庫, 天理圖書館 등에 전하고 있다. 前 3者는 1472年(成宗 3) 印出된 것으로서, 끝에 甲寅字로 된 金守溫의 跋文이 있다. 다른 佛書와 함께 이미 만들어진 冊板으로 印出된 책이다. 原刊本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刊經都監 諺解本과 마찬가지로 內題다음 譯者의 이름이 削除되었다.[23] 이것을 底本으로 하여 1954年 通文館에서 影印本을 출판하였다.

蒙山法語는 매우 많이 읽힌 책이므로 重刊本의 수효도 많다. 壬辰亂 이전 刊本도 7종이 알려져 있다. 原刊本을 覆刻한 것은 1521年(中宗 16) 金剛山 楡岾寺(東國大 및 成均館大圖書館), 1523年(中宗 18) 慶尙道 豊基 石輪庵(澗松文庫), 1525年(中宗 20) 黃海道 深源寺(高麗大圖書館 晩松文庫), 1543年(中宗 38) 全羅道 鎭安 中臺寺(延世大圖書館)의 開板本들이다. 大文의 分段과 行款 字數를 달리하여 刊行한 책은 1527年 忠淸道 孤雲寺版(서울大圖書館 가람文庫, 高麗大圖書館 華山文庫), 1535年(中宗 30) 寧邊 氷鉢庵版(晩松文庫) 등이 있다. 이것을 대체로 따르되, 東國正韻式 漢字音表記를 止揚한 책은 1577年(宣祖 10) 全羅道 松廣寺版(서울大圖書館 일사文庫)이다. 이 책에서는 口蓋音化까지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蒙山法語諺解는 原刊本과 1523年의 石輪庵版을 제하고 모두 四法語와 合綴되어 있다. 같은 法語를 수록한 책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蒙山法語諺解에는 牧牛子修心訣, 四法語와 함께 병도 사용되고 있어서 특이한 資料가 된다.

23. 四 法 語 諺 解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蒙山和尙示衆, 古潭和尙法語의 4篇의 法語에 한글로 口訣을 달고 飜譯한 책이다. 內題 다음에 「慧覺尊者譯訣」이라 있으므로, 口訣과 飜譯은 信眉에 의한 것이다. 刊記가 없어서 刊年未詳이다. 그런데 分量이 10張정도의 책이므로, 單行本으로 刊行된 일이 없고 牧牛子修心訣이나 蒙山法語諺解의 重刊本에 合綴되어 있다. 따라서 牧牛子修心訣의 刊年인 1467年(世祖 13) 刊經都監에서 刊行된 것으로

(23) 前註 14를 참조할 것.

보인다.

原刊本으로 보이는 책은 서울大圖書館 일사文庫所藏 牧牛子修心訣 앞에 合綴된 것이다. 口訣을 단 각 法語의 原文을 먼저 들고, 諺解를 보이는 體裁로 되어 있다. 重刊本도 상당히 많은데, 版式과 諺解體裁에서 差異를 보인다. 먼저 1500年(燕山 6) 慶尙道 鳳栖寺版이 있는데, 牧牛子修心訣에 合綴된 것으로 앞의 책을 覆刻한 것이다. 그뒤의 重刊本은 蒙山法語諺解에 合綴되어 있는데, 蒙山法語諺解와 같은 體裁로 各篇의 法語를 大文으로 나누어서 飜譯하였다. 다만 原文의 漢字에 讀音을 表記하지 않음이 다르다. 그러한 책으로는 1517年(中宗 12) 孤雲寺版, 1543年(中宗 38) 中臺寺版, 1577年(宣祖 10) 松廣寺版 등이 있다. 이들은 行款이 다르나 같은 體裁로 되어 있다. 松廣寺版이 漢字讀音 表記에서 東國正韻式을 止揚하고 또 口蓋音化를 보여주는 등, 差異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現代의 影印本은 1973年 亞細亞文化社에서 일사文庫本 牧牛子修心訣을 底本으로 하여 출판되었다.

24. 海 東 諸 國 紀

日本과 琉球의 地勢, 國情, 國交의 沿革과 使臣接待의 節目등을 적은 책이다. 처음 申叔舟에 의하여 1471年(成宗 2)에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누차에 걸쳐 內容이 追補되었다.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랜 刊本은 1512年(中宗 7)의 內賜本이다. 甲寅字本이나, 琉球國 이하는 乙亥字로 되어 있다. 國立中央圖書館 일산文庫, 日本의 內閣文庫 등에 소장되어 있다.

國語史資料로서는 卷末 附錄의 「語音飜譯」에 琉球語가 한글로 表記된 것이 있다. 旁點은 없으나 脣輕音까지 사용하여 정확히 표기하려 한 것이다. 影印本은 1933年 朝鮮史編修會에서 朝鮮史料叢刊 2輯으로 간행되었다.

25. 內　　訓

成宗의 生母인 德宗妃 昭惠王后(仁粹大妃)가 婦女訓育에 필요한 대목을 小學·烈女·女敎·明鑑의 네 책에서 뽑아 7章으로 나누어 편찬한 책이다. 序跋의 年記가 「成化乙未」이므로 1475年(成宗 6)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原刊本은 전하지 않는다. 乙亥字로 된 重刊本이 日本의 蓬左文庫에 전하는데, 가장 오랜 異本이라 하겠다. 그 책에는 「萬曆元年 (1573) 12月日云云」의 內賜記가 있을 뿐 아니라, 「불」(臂)이, 「풀」, 「一마른」이 「一마는」으로 된 事實로써, 1573年(宣祖 6)에 重刊된 刊本임을 말하여 준다.[24] 卷2가 上下로 分册되어 3권 4책으로 되어 있다. 그밖의 異本은

(24) 이의 影印本에 실린 金智勇교수의 內訓攷에서는 이 책을 原刊本으로 잡고 있으나, 重刊本인 것이다. 자세한 論議는 다음을 참조할 것.
安秉禧, 壬辰亂直前 國語史資料에 관한 二三問題에 대하여, 震檀學報 33號 (1972), 특히 p. 93 以下.

1611年(光海 2)과 1656年(孝宗 7)에 刊行된 것이 전하는데, 모두 3권 3책이다. 旁點이 없어지고 諺解에도 약간씩 差異를 보인다. 이밖에 1736年(英祖 13)의 御製內訓이 있다. 書名도 달라졌지만, 譯文의 語彙와 文體가 사뭇 달라져서 완전히 딴 文獻이 되어 있다.

現存하는 1573年版 內訓은 原刊本의 모습(예컨대, 붕등)도 보이지만, 16世紀後半의 言語事實도 보이므로, 조심성있게 다루어야 할 國語史資料다. 그런데 語彙 중에는 宮中用語도 있어서 특이한 資料가 된다. 이 책은 1969年 延世大 人文科學硏究所에 影印本으로 刊行하였다.

26. 分類杜工部詩諺解

唐나라 杜甫의 詩를 國譯한 책이다. 흔히 杜詩諺解라 略稱된다. 書名에 보이는 工部는 杜甫의 官名, 分類는 詩를 紀行·述懷·疾病등과 같이 內容에 따라 분류하였다는 뜻이다. 杜甫의 詩에 대한 注釋은 世宗때부터 행하여졌으나, 飜譯은 成宗의 命으로 柳允謙 등 文臣과 僧侶인 義砧등이 1481年(成宗 12)에 완성하여 이 책으로 出版된 것이다. 卷頭에 曹偉의 序가 있다.[25]

完帙은 25권인데, 현재 卷1, 2, 4, 5, 12가 전하지 않는다. 現存本도 흔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所藏處를 밝혀두기로 한다.[26]

卷3: 李謙魯, 石南藏書(普成高校).

卷6: 서울大圖書館 가람文庫, 延世大圖書館(1971年 國語學會에서 國語學資料選集 II 에 影印).

卷7: 서울大圖書館 가람文庫, 李熙昇, 金亨奎, 李謙魯(1954年 通文館에서 卷8과 合本影印. 1960年 國語學會에서 古典選叢에 影印).

卷 8: 李謙魯(1954年 卷7과 合本影印).

卷 9: 李謙魯.

卷10: 李謙魯, 李能雨, 李丙疇(1978年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影印).

卷11: 서울大圖書館, 李丙疇(1978年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影印).

卷13: 故全鎣弼.

卷14: 趙參衍(1973年 한글 152號에 影印, 1976年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影印).

卷15: 서울大圖書館 가람文庫, 鄭喆(1959年 通文館에서 卷16과 合本影印, 1976年 세

---

(25) 曹偉의 序에 대하여는 李丙疇, 金一根교수에 의한 論難이 있었다. 그러나 原刊本의 序가 曹偉에 의한 것임은 燕山君實錄의 다음 記錄에 의하여 분명하다. 이때 다른 序文으로 一時 바뀐 것이 아닌지 모르나, 지나친 推論은 禁物이다.

下分類杜詩曰 序乃罪人曹偉所製也 其削之 且罪人如成俔所製序跋 並去之(燕山10年 12月 己卯條)

(26) 이 所藏處의 調査에는 李丙疇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謝意를 표한다.

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影印).

卷16： 서울大圖書館 가람文庫, 鄭喆, 李謙魯(1956年 卷15와 合本影印).

卷17： 李謙魯.

卷18： 故崔鉉培.

卷19： 李謙魯.

卷20： 李謙魯, 東國大圖書館(1955年 通文館에서 卷 21,22와 合本影印).

卷21： 李謙魯, 東國大圖書館(1955年 卷20,22와 合本影印).

卷22： 李謙魯(1955年 卷20,21과 合本影印).

卷23： 李謙魯(1955年 通文館에서 卷24,25와 合本影印).

卷24： 서울大圖書館 일사文庫(1955年 卷 23,25와 合本影印).

卷25： 李丙疇, 李寬求(1955年 卷 23,24와 合本影印).

그런데 이 原刊本의 大部分은 用紙와 着墨이 좋지 않다. 거기에 誤字도 나타난다. 그러나 用紙와 着墨이 좋으면서 校正까지 된 善本이 있다.(27) 가람文庫 소장의 卷6,7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原刊本이라 하더라도 資料로써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杜詩諺解의 異本으로는 1632年(仁祖 10)의 重刊本이 있다. 完帙이 전하는데, 原刊本의 校正部分이 그대로 지켜져 있다. 近代語의 資料지만, 校正되지 않은 原刊本은 이 重刊本으로써 補完될 수 있다. 요컨대 이 책은 中世語資料로서 매우 귀중할 뿐아니라, 飜譯文學의 代表的인 例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現存 原刊本의 折半 以上이 影印된 사실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27. 三 綱 行 實 圖

원래 三綱行實圖는 世宗의 命에 의하여 偰循 등이 1434年(世宗 16) 편찬 간행한 책이다. 우리나라와 中國의 歷代文獻에서 孝子, 忠臣, 烈女의 節行이 뛰어난 사람 각각 110명을 가려서 그림과 漢文의 說明과 詩·贊을 붙여 3권 3책으로 刊行한 것이다. 한글 創制 이후 이의 飜譯이 論議되어, 人員 110명을 35명으로 줄이고 欄上에 諺解를 붙여서, 3권 1책의 三綱行實圖가 刊行되었는데, 이것이 國語史資料로 이용되는 책이다. 刊年은 1471年(成宗 12)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飜譯은 世宗朝부터의 일이므로, 原刊本의 言語事實은 龍飛御天歌 등 初期 한글文獻의 그것과 비슷하다.

현재 原刊本으로 보이는 책은 旁點과 ㅸ ㆆ ㆅ까지 나타나는 책이다. 誠巖文庫所藏本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서울大圖書館 일사文庫, 高麗大圖書館, 李崇寧선생, 通文館(忠臣圖)과 日本의 內閣文庫 등에도 所藏되어 있으나, 이들은 거의 後刷本으로서 後代의 補板까지 가

(27) 善本의 校正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安秉禧, 解題, 國語學資料選集 Ⅱ(1971).

지고 있다.[28] 壬辰亂 이전의 重刊本은 1581年(宣祖 14)의 內賜本(李熙昇선생 所藏)과 그 覆刻本이 있다. 서울大圖書館, 成均館大圖書館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旁點이 없어졌으나 △ㅇ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壬辰亂 이후의 重刊本은 1730年(英祖 6) 校書館과 各道 監營에서 刊行된 책들이다. 現代의 影印本은 1972年 世宗大王記念事業會에서 1581年版인 成均館大學本을 底本으로 한 것이 있다.

이 책의 原刊本 系統은 刊年과 상관없이 龍飛御天歌 등과 같은 言語事實을 보이는 점에서 중요한 國語史 資料다. 漢字音表記는 東國正韻을 따랐으나, 終聲 ㅇ을 缺하고 있어서 특이한 漢字音資料가 되고 있다. 1581年版은 正書法뿐아니라 飜譯까지 달라졌는데, 스스로 中世語 末期 資料이지만, 原刊本 系統 책과의 比較 硏究를 위한 資料도 된다.

28. 金 剛 經 三 家 解

朝鮮初期의 高僧 涵虛堂 得通의 金剛經五家解에서 冶父頌, 宗鏡提綱, 涵虛說誼를 뽑아서 口訣을 달고 飜譯한 책인데, 이들 三家解 앞에 金剛經의 本文을 金剛經諺解에서 口訣이 달린 그대로 싣고 있다. 책 뒤에 있는 韓繼禧(1482年 7月), 姜希孟(1482年孟夏仲浣)의 跋에 의하면, 世宗의 命令으로 文宗과 世祖가 翻譯하여 완성하였으나, 慈聖大妃(世祖妃)의 命令으로 學祖가 校正하여 內需司에서 活字로 300部를 印出하였다고 한다. 이 跋文은 그대로 南明集諺解에도 있으므로, 1482年(成宗 13)에 함께 刊行된 것이라 하겠다. 5권 5책의 乙亥字本이다.

重刊된 일은 없고, 原刊本만 전한다. 卷 2~5 4책은 완전하게 서울大圖書館 가람文庫에, 卷1은 落張本으로 東國大圖書館에 收藏되어 있다. 이밖에 卷3, 4 2책이 誠巖文庫에 전한다. 가람文庫本은 1961年 한글학회에서 影印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

29. 南 明 集 諺 解

南明集은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의 略稱인데, 이밖에 證道歌南明繼頌, 證道歌繼頌, 南明繼頌 등으로도 불리어진다. 唐나라 永嘉玄覺의 證道歌를, 宋나라 南明泉禪師가 句마다 繼頌한 320篇이 그 內容이다. 南明集의 諺解는 원래 世宗이 30餘篇을 번역하여 世祖로 하여금 完譯하도록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慈聖大妃(世祖妃)의 命令으로 學祖가 완성하여 乙亥字로 500部를 印出하였다. 모두 上下 2권 2책, 刊年은 韓繼禧(1482年 7月 日字)와 姜希孟(1482年孟夏仲浣)의 跋文年代인 1482年(成宗 13)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

(28) 그러한 補板을 가지고 印出된 1608年 (宣祖 41)의 內賜本이 現存한다. 현재 居昌의 某氏所藏인데, 柳鐸一교수의 好意로 寫眞으로 調査한 것이다.

原刊本은 서울大圖書館 가람文庫, 李謙魯씨가 소장하고 있으며, 卷下 零本을 高麗大圖書館과 同晩松文庫, 金錫夏교수가 소장하고 있다. 重刊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原刊本을 檀國大 國語國文學科에서 卷下(1972), 卷上(1973)으로 影印하였다.

30. 佛 頂 心 經

陁羅尼經, 觀音經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책이다. 卷上이 佛頂心陁羅尼經, 卷中이 佛頂心療病救產方, 卷下가 佛頂心救難神驗經인 3권 1책인데, 먼저 漢文本(木版本)을 보인 뒤에 諺解本(活字本)을 合綴한 것이 이 책이다. 보통 佛經 諺解書가 大文을 單位로 하여 經本文과 諺解文을 짝짓는 것과는 다른 體裁이다. 漢文本 끝에는 1485年(成宗 16)의 學祖 跋文(1485年 2月 日字)이 있다. 그때 刊行된 책이다.

原刊本은 李熙昇선생 所藏本이 알려져 있다. 이를 底本으로 한 影印本이 1958年 正陽社, 다시 1974年 亞細亞文化社에서 출판되었다. 重刊本으로는 1561年(明宗 16) 平安道 解脫庵에서 覆刻된 것이 國立中央圖書館, 李謙魯씨 所藏으로 전한다. 壬辰亂 이후의 覆刻本도 있다.

31. 五 大 眞 言

四十二手眞言, 神妙章句大陁羅尼, 隨求即得陁羅尼, 大佛頂陁羅尼, 佛頂尊勝陁羅尼의 다섯가지 眞言을 五大眞言이라 하는데, 이 책은 그 眞言을 梵字로 적고 한글, 漢字로 音譯한 것이다. 책끝의 學祖跋(1485年 乙巳孟夏)에 의하면, 仁粹大妃가 一般民衆의 誦習을 위하여 梵書·漢字의 對譯에 한글音譯을 덧붙여 刊行한 것이라 한다. 刊年은 跋文年代인 1485年(成宗 16)이다. 五大眞言 다음에 靈驗略抄가 있는데, 漢文原典만인 책도 있으나 諺解까지 갖는 책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諺解하여 添附한 것으로 보인다. (靈驗略抄 참조)

현재 原刊本은 落張本(張 1~23만 있음)으로 誠巖文庫에 전한다. 壬辰亂 이전의 重刊本은 數種 있다. 즉 1531年(中宗 26) 智異山 鐵堀, 1535年(中宗 30) 黃海道 深源寺, 1550年(明宗 5) 豐基 哲庵에서 刊行된 책과 刊記 未詳의 책(奎章閣, 東國大圖書館, 李謙魯, 日本東洋文庫 소장)이 그것이다. 1550年版에는 靈驗略抄가 諺解되어 있음이 특이하다. 요컨대 이 資料는 最初의 한글音譯 眞言集이란 점에서 특이한 資料가 된다.

32. 靈 驗 略 抄

네가지 眞言, 곧 大悲心陁羅尼, 隨求即得陁羅尼, 大佛頂陁羅尼, 佛頂尊勝陁羅尼가 나타낸 신령스러운 事實들을 설명한 책이다. 오늘날 諺解本은 乙亥字本을 覆刻한 單行本이 漢

文의 原典없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는 漢文 原典과 함께 五大眞言에 合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五大眞言참조). 그 單行本의 版心題가 五大眞言과 같이 「五大」이고, 張次가 五大眞言에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五大眞言의 學祖跋에 따라서 1485年(成宗 16) 翻譯 刊行된 책이다. 佛頂心經이 같은 學祖에 의하여 같은 해, 같은 體裁, 곧 木版인 漢文 原典과 乙亥字本인 諺解本이 별도로 刊行된 것도 그것을 뒷받침한다. 言語事實도 두 책이 완전히 공통되는 것이다.

原刊本은 전하지 않는다. 1550年(明宗 5) 慶尙道豐基 哲庵(喜方寺)에서 覆刻한 重刊本이 전할 뿐이다. 이를 底本으로 한 影印本이 1974年 古典語文學精粹에 수록되어 螢雪出版社에서 출판하였다.

33. 救 急 簡 易 方

救急方書로서는 가장 완비된 책으로, 1489年(成宗 20) 尹壕 등이 편찬하여 刊行하였다. 시골에서도 이 책만 있으면 治療할 수 있도록, 方文마다 한글로 諺解를 덧붙여 놓았다.

모두 9권인데, 原刊本은 전하지 않는다. 重刊本이 전하는데, 乙亥字本의 覆刻으로서 16世紀中葉의 刊本이 아닌가 한다. 그것도 完帙이 아니라, 卷1(일사文庫), 3(東國大圖書館), 6(韓獨藥史館, 李謙魯), 7(故金完燮)만이 알려져 있다.

34. 衿 陽 雜 錄

姜希孟이 衿陽(현재 始興)에 隱退하여 있을 때 편찬한 책이다. 農事에 관한 著書인데, 原刊은 아들 龜孫의 跋文 年代에 따라 1492年(成宗 23)으로 추정된다. 현재 原刊本은 日本의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나, 後刷本이다. 널리 유포된 것은 重刊本으로서 뒤에 말할 農事直說에 合綴된 책이다.

國語史資料로서는 穀品에 있는 穀物名의 固有語를 吏讀와 한글로 표기한 內容이다. 旁點은 없으나, △ㅇ이 나타난다.[29]

35. 伊 路 波

日本語의 入門書인데, 日本文字의 字體와 音價를 보인 「四體字母各四十七字」와 書簡文集인 「合用言語格」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 끝에 「弘治 5年(1492) 秋8月日」이란 年紀가 刊年이라고 생각되므로, 1492年(成宗 23)에 刊行된 책이다. 日本文字의 讀音表記에 쓰인 한글

(29) 이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李基文, 衿陽雜錄의 穀名에 대하여, 東洋學 5輯 (1975).

이 國語史資料가 되는데, 同時에 日本語史의 資料도 된다. 현재 唯一本으로 日本의 香川大學附屬圖書館 神原文庫소장이다. 日本語資料로도 특이하기 때문에, 日本에서 1959年(香川大學), 1965年 (京都大學國語國文學研究室), 1972年(古典刊行會叢書 1)에 따로이 影印되었다.

36. 樂 學 軌 範

成宗의 命令으로 成俔, 柳子光 등이 正調樂舞의 保存을 위하여 1493年(成宗 24) 편찬하여 刊行한 책이다. 9권 3책으로, 內容은 雅樂·唐樂·鄕樂의 3門으로 나누어서 作律과 用律, 그리고 樂器등을 설명한 것이다.

현재 壬辰亂 以前의 刊本은 日本의 蓬左文庫에 유일하게 完帙이 소장되어 있다. 李友閔(1546年 文科, 1574年卒)의 藏書印이 있으므로, 16世紀 中葉의 印出本이다. 그러나 册板의 雕造年代는 명확하지 않다. 原刊本일 可能性도 있다. 이 책이 國語史資料로서 갖는 價値는 高麗歌謠의 한글歌詞(卷 5)와 한글表記의 音樂用語다. 특히 國文歌詞에는 旁點이 없는 점이 주목된다. 1968年에 延世大 人文科學研究所에서 影印한 바 있다. 國內에는 1610年(光海 2)과 1955年(孝宗 6) 등의 覆刻本이 전하고 있다.

37. 六 祖 法 寶 壇 經 諺 解

1496年(燕山 2) 施食勸供과 함께 國譯되어 木活字로 刊行된 책이다. 원래 六祖大師 惠能의 語錄을 門人이 分章 編輯한 것인데, 흔히 六祖壇經이라고만 불리어진다. 이것을 仁粹大妃의 命令으로 學祖가 翻譯한 것으로 보인다(次項 참조).

모두 3권3책으로 되어 있으나, 卷下가 전하지 않는다. 卷上은 서울大圖書館 일사文庫와 李東林교수, 卷中은 李謙魯, 李東林, 李承旭 제씨의 所藏이 알려져 있다.

施食勸供과 같은 時期, 같은 性格의 資料로서 國語史와 書誌學의 研究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卷上은 1971年 國語學會의 「國語學資料選集 Ⅱ」(部分)와 1979年 弘文閣, 卷中은 1976年 仁荷大 國學研究所에서 影印한 바 있다.[30]

38. 眞言勸供·三壇施食文

眞言勸供과 三壇施食文은 佛家의 日用法事를 다룬 內容인데, 1496年(燕山 2) 合册하여 木

(30) 影印本에 각각 다음의 解題가 있다. 참조할 것.
安秉禧, 解題, 國語學資料選集 Ⅱ(1971).
南廣祐, 解題, 六祖法寶壇經 卷中.

活字로 刊行되었다. 施食勸供이라 略稱된다. 책끝에는 「弘治 9年(1496)夏 5月日跋」로 끝나는 跋文이 있어서 刊行의 經緯를 알려준다. 跋文은 대부분이 六祖法寶壇經諺解에 관한 것이므로(이 時期 佛書의 경우, 하나의 跋文이 同時 刊行의 책에 두루 사용되는 일이 있다), 六祖法寶壇經에도 있었으리라고 推定된다. 그에 의하면 仁粹大妃의 命令으로 跋文을 쓴 僧侶가 六祖法寶壇經과 施食勸供을 國譯하여 木活字로써 각각 300件과 400件을 同時에 印出하였다고 한다. 跋文의 筆者에 대한 明記는 없으나, 仁粹大妃와 특별한 因緣을 가진 僧侶로서 당시 生存한 高僧은 學祖뿐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學祖의 飜譯이라고 보여진다.

六祖法寶壇經과 이 책은 重刊된 일이 없어서 매우 희귀한 책이다. 일찌기 宋錫夏씨의 所藏本이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서울大圖書館의 일사文庫에 唯一本으로 전한다.

이 책은 15世紀末의 國語史資料로서, 특히 現實化된 漢字音表記와 眞言의 한글音譯 등으로서 중요하다. 木活字本인 점에서 書誌學 硏究에도 소중한 책이다. 1978年 明知大 國語國文學科에서 影印으로 刊行한 바 있다.(31)

39. 續 三 綱 行 實 圖

申用漑 등이 中宗의 命으로, 三綱行實圖에 빠진 孝子 36명, 忠臣 5명, 烈女 28명에 대한 事蹟을 수록한 책이다. 體裁는 事蹟을 그림과 漢文으로 설명하고, 欄上에 한글로 飜譯을 실었는데, 全的으로 三綱行實圖에 따른 것이다. 刊年은 1514年(中宗 9)이다.

原刊本은 서울大圖書館 일사文庫와 日本의 東洋文庫에 所藏되어 있다. 旁點과 △ㅇ은 물론이고, 혼란되었으나 ㅸ까지 사용되고 있다. 漢字音表記도 東國正韻에 따른다. 책 體裁뿐 아니라, 正書法까지도 三綱行實圖를 따랐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壬辰亂 이전의 重刊本은 1581年(宣祖 14) 三綱行實圖와 함께 刊行된 책이 그것이다. 日本의 內閣文庫와 國會圖書館, 臺灣의 中央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다. 欄上 諺解는 한글만으로 되었는데, 旁點과 ㅸ△은 없어지고 ㅇ이 쓰인다. 內容에서는 深源斥姦條가 追加되어 忠臣이 6명으로 늘어난다. 요컨대 이 續三綱行實圖는 16世紀에 刊行되었으면서도 15世紀中葉의 資料에 나타나는 言語事實과 비슷한 점에서 매우 특이한 資料라 할 것이다.

40. 飜 譯 老 乞 大

中國語 學習書인 老乞大의 原文漢字에 한글로 中國의 正音과 俗音을 달고 飜譯한 책이다. 譯者와 刊行에 관한 明記가 없으나, 崔世珍의 四聲通解와 老朴集覽, 通文館志 등 關係文獻

(31) 이 책의 刊行과 言語事實등에 관한 자세한 論議는 影印本의 安秉禧의 解題를 참조할 것.

에 근거하여 崔世珍이 飜譯하여 刊行한 것임이 분명하다.

현재 卷上(故 白淳在씨所藏), 卷下(誠巖文庫所藏) 全帙 木版本이 있다. 壬辰亂 이전의 刊本이나, 乙亥字本의 覆刻으로 보이며 또 欄上에 補印(卷下)한 것이 나타나므로 原刊本인지는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 책 이외의 老乞大 諺解書는 1670年(顯宗 11)의 老乞大諺解가 最古本이므로 飜譯老乞大의 價値는 크다. 또 老乞大가 商賈의 旅行과 交易에 관한 會話集이므로 더욱 특이한 資料가 된다. 南廣祐교수에 의하여 卷上(1972年 中央大 大學院), 卷下(1974年 仁荷大) 모두 影印되었다.[32]

41. 飜 譯 朴 通 事

老乞大와 함께 中國語 學習書인 朴通事의 原文漢字에 한글로 中國語의 正音과 俗音을 달고 飜譯한 책이다. 책에 譯者와 刊行에 관한 明記가 없으나, 飜譯老乞大와 마찬가지로 崔世珍이 飜譯하여 刊行한 것이다. 刊年은 분명하지 않으나, 四聲通解에 飜譯老乞大朴通事凡例가 실려 있는 점에서 1517年(中宗 12)의 四聲通解보다 앞섰음을 알 뿐이다.

현재 原刊本은 乙亥字本으로 卷上 1책이 國會圖書館(趙誠穆씨舊藏)에 소장되어 있다. 이를 底本으로 한 影印本이 1959年 慶北大 大學院에서 간행되었다.[33] 朴通事는 中國人의 生活風習과 制度 등에 관한 問答을 모은 것이므로, 會話體로 된 특이한 國語史資料다. 現存最古의 重刊本인 1677年(肅宗 3) 朴通事諺解와의 比較가 가능한 점에서도 중요한 資料다.

42. 老 朴 集 覽

老乞大와 朴通事 중에서 難解한 語句와 固有名詞 등을 뽑아서 설명한 語彙集이다. 說明은 漢文으로 되었으나, 한글로 된 예도 있다. 책에 編者와 刊年에 관한 明記가 없다. 그러나 凡例에 老乞大와 朴通事의 諺解書의 分卷에 대한 1條와 四聲通解序에 崔世珍이 스스로 集覽의 編纂을 말하고 있는 事實, 그리고 後代의 記錄에 근거하여 飜譯老乞大·朴通事보다 늦게, 四聲通解보다는 앞서서 崔世珍이 편찬하였음이 분명하다. 內容은 1音節語에 대한 單字解와 多音節語에 대한 累字解로 된 字解, 上下卷인 老乞大集覽, 上中下卷인 朴通事集覽의 3部로 되어 있다.[34]

乙亥字로 된 原刊本은 현재 東國大圖書館에 소장되어 전한다. 이 책이 일찍부터 佚書였

(32) 두 影印本에 南廣祐교수의 解題가 있다. 참조할 것.
(33) 金思燁교수의 解題가 있다. 참조할 것.
(34) 書名이 正式으로는 集覽이 옳은 것이라 생각된다. 內題가 「集覽」뿐인 데다가, 書外題가 「集覽合部」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7世紀 朴通諺解序등에 「老朴輯覽」이라 있으므로 여기 慣用에 따르기로 한다.

음은 1677年 朴通事諺解 編纂時 시골에서 求得한 책으로 비로소 보게 되었다고 한 점으로 알 수 있다. 그리하여 朴通事集覽은 朴通事諺解의 해당 句節에 揷入하고 老乞大集覽과 單字解만을 朴通事諺解에 附錄으로 重刊하게 되었다. 이 때의 책도 完本은 아닌 듯하여, 單字解 끝部分의 1張 정도와 累字解는 重刊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의 原刊本은 앞뒤가 완전하여 1966年 李丙疇교수에 의한 解題로 影印되었다.

43. 四 聲 通 解

崔世珍이 편찬한 中國語의 韻書다. 申叔舟의 四聲通攷를 補完하기 위하여 洪武正韻譯訓 등을 참고하여 편찬한 것인데, 體裁는 漢字를 字母順으로 배열하여 한글로 表音하고 자세한 字釋을 단 것이다. 刊行에 관한 확실한 記錄이 없으나, 崔世珍 자신의 序文 年記에 따라 1517年(中宗 12)의 原刊으로 추정된다.

현재 原刊本은 전하지 않는다. 故宋錫夏씨 舊藏本인 乙亥字本이 原刊本으로 推定되었으나, 所在不明이다. 이 乙亥字本의 覆刻으로서, 壬辰亂 以前 刊行으로 보이는 木版本이 日本의 國會圖書館소장으로 있다.[35] 그 版心題가 乙亥字本과 같이 「四聲通解」로서, 後代 版本의 「通解」와는 다르다. 國內에는 壬辰亂 以後의 活字本과 木版本이 전한다. 그중의 하나인 1614年(光海 6) 版을 1973年 서울大文理大 國語國文學科에서 影印하였다.

이 책은 한글表音으로써 中國語, 특히 近世 北方音의 硏究에 중요한 資料일 뿐 아니라, 한글로 된 字釋으로써 國語史의 資料로도 이용되고 있다.

44. 續 添 洪 武 正 韻

洪武正韻의 缺陷을 보완하기 위하여 편찬된 韻書다. 字母의 配列에도 약간의 修正이 있으나, 字母 아래 配屬된 漢字의 增補가 주된 動機가 되어 만들어졌다. 洪武正韻譯訓과 꼭 같이 小韻의 代表字에는 한글로 表音이 달려 있다. 그러므로 續添洪武正韻譯訓이란 書名이 더 적절한 이름이다. 編者는 未詳이나, 四聲通解凡例와 책 內容의 檢討에서 崔世珍으로 믿어진다.

原刊本은 上下 2권인 듯하나, 현재 卷上 1책이 通文館에 소장되어 있다. 刊年은 四聲通解보다 늦으나, 編纂은 오히려 四聲通解에 앞서는 것이 아닌가 한다.[36] 요컨대 한글 表音이 中國語와 國語의 音韻史의 귀중한 資料가 된다.

---

(35) 책에 圓光寺常住 元佶(號 三要, 1548~1612)의 署名이 있으므로, 壬辰亂에 日本으로 건너간 책이다. 元佶의 所藏인 韓國本은 日本에 더러 있는데, 모두 壬辰亂 이전의 刊本이다.

(36) 이에 대한 紹介는 다음을 참조할 것.
金完鎭, 續添洪武正韻에 對하여, 震檀學報 29·30號 (1966)

45. 飜 譯 小 學

小學의 大文을 諺解한 책이다. 모두 10권 10책, 小學諺解와 卷數가 다른 것은 이 책의 底本이 小學集成이기 때문이다. 金詮 등이 諺解하여, 南袞 跋文의 年代인 1518年(中宗 13)에 原刊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原刊本은 전하지 않는다. 16世紀 末期 내지 그 이후의 重刊本이 零本으로, 卷8(高麗大圖書館), 9(서울大圖書館 가람文庫), 10(國立中央圖書館)이 전할 뿐이다.[37] 이들은 木版本인데, 乙亥字本의 覆刻이므로 原刊本은 乙亥字本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책은, 小學諺解가 지나치게 意譯에 흘렀다고 할 程度로 일반 諺解의 文體와 다르다. 그러한 점에서 귀중한 資料가 된다.

46. 二 倫 行 實 圖

1518年(中宗 13) 慶尙道觀察使 金安國이 曺伸에게 編纂시켜 金山郡(현재의 金泉)에서 刊行한 책이다. 內容은 三綱과 더불어 儒敎의 基本的인 人倫인 二倫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長幼와 朋友의 行實이 뛰어난 사람 48명을 가려 兄弟圖에 宗族圖, 朋友圖에 師生圖를 덧붙였는데, 각기 그 行蹟을 기록하고 그림으로 그리며 또 諺解를 한 것이다. 三綱行實圖의 體裁를 그대로 본뜬 책이다.

原刊本은 玉山書院(慶尙北道 月城郡)의 獨樂堂과 梨花大學校에 소장되어 있다. 前者는 1539年(中宗 34, 嘉靖 18) 李彦迪에게 內賜된 책인데, 金山郡에서 印出하여 頒賜한 것이다. 이밖에 覆刻本과 改刊本이 전한다. 覆刻本은 日本 東京의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는데, 揷畵와 魚尾 등에서 差異를 보이고 諺解(10a에 旁點이 없는 따위)도 다르다. 改刊本은 1579年(宣祖 12)의 內賜本이 金誠一 宗家(慶北安東)에 있으며, 이 系統의 책이 李崇寧선생 所藏으로 있다. 그밖에 1727年(英祖 3)의 平壤版과 1730年의 各道 監營版이 전한다.

欄上의 諺解가 國語史 資料로 利用되는데, 原刊本은 旁點과 ㆆ, 혼란되었으나 △도 나타나고 간혹 특이한 語彙도 보인다. 改刊本인 1579年版은 旁點과 △이 폐기되고 ㆆ이 終聲表記로만 쓰인다. 諺解도 사뭇 달라진 곳이 있다. 原刊本과 1727年版은 1978年 東洋學硏究所에서 警民編과 함께 影印으로 刊行하였다.[38]

---

(37) 李春熙교수, 李朝書院文庫目錄(1969)에 의하면 玉山書院에 卷 3, 8, 10, 獨樂堂에 卷 6~9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報告되어 있다. 그러나 筆者의 實査(1979年 2月)로는 찾아볼 수 없었다. 筆者의 調査가 잘못된 것인지, 후에 散佚된 것인지 後考를 기다리기로 한다.

(38) 二倫行實圖에 대하여는 影印本에 실린 安秉禧의 解題를 참조할 것.

47. 朱子增損呂氏鄕約

呂氏鄕約으로 略稱된다. 鄕約은 同鄕人이 서로 경계하고 도와야 할 일을 約定한 것인데, 呂氏鄕約은 11世紀 後半期 中國 陝西省의 呂氏가 지은 鄕約을 朱子가 添削을 하고 註釋을 달아서 만든 책이다. 이 原典의 漢文에 借字로 口訣을 달고 諺解를 덧붙여서 1518年(中宗 13) 金安國이 慶尙道에서 刊行한 것이 이 책이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重刊되었다.

原刊本으로 推定되는 책을 비롯하여 여러 異本이 전한다. 原刊本으로 보이는 책은 日本 東京의 尊經閣文庫所藏이다. 이보다 늦은 刊本은 刊年未詳의 乙亥字本인 高麗大圖書館 華山文庫 소장本과 역시 乙亥字本인 1574年版(宣祖 7)과 그 覆刻本들이다. 1574年版은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인데, 李熙昇, 李謙魯, 誠巖文庫 등의 所藏이 있다. 이들 異本은 서로 諺解는 물론이고 原典의 漢字까지도 差異를 보인다. 더우기 1574年版은 대체로 補正되었으나, 補正되지 않은 책(延世大圖書館 所藏本등)도 있다. 이 補正은 단순한 誤印의 校正뿐 아니라 語彙變遷에 말미암은 單語의 交替도 나타난다.

이 책은 原刊本이 나온 뒤로 60年間에 적어도 두 번 重刊된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比較함으로써 正書法과 語彙의 變遷을 볼 수 있다. 尊經閣本은 體言의 末子音을 二重으로 적는데 대하여 餘他의 異本은 한번 적고, 尊經閣本과 華山本의 「붓(助詞), 돋주우리—(趨)」가 1574年版은 「곳, 두라나—」로 된 따위다. 助詞 「붓」은 1574年版의 未補正版에도 나타나므로, 印刷한 뒤에 「곳」으로 修正한 것임을 알게 된다. 이들 刊本은 1976年 東洋學硏究所에서 影印하였다.(39)

그런데 諺解없이 原典의 漢文에 借字로 口訣만 단 책이 있다. 刊記가 「正德 13年 戊寅(1518) 9月日羅州開刊」으로 되어 있으므로, 3月 刊行인 諺解의 原刊本보다 6個月 늦은 刊本이다. 誠巖文庫 所藏本인데, 原典의 對較에 의하면 尊經閣本과 一致한다. 尊經閣本이 原刊本이란 推定에 또 하나의 傍證이 되는 것이다.

48. 正 俗 諺 解

逸菴王公의 著述로서, 中國 松江府에서 14世紀 中葉 王至和가 序文을 붙여 刊行한 正俗篇을 飜譯한 책이다. 正俗篇은 風習을 바로잡기 위하여 孝父母, 友兄弟등 18條目에 걸쳐 설명한 敎化書다. 1518年(中宗 13) 慶尙道觀察使 金安國이 呂氏鄕約과 함께 慶尙道에서 原文에 借字로 口訣을 달고 飜譯 刊行하였다.

漢文의 原文이 1行 16字本과 1行 21字本인 두 刊本이 널리 유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18世紀頃의 重刊本인데, 近者 壬辰亂이전의 木版本(李源周교수 所藏)이 발견되었

(39) 자세한 紹介는 影印本의 安秉禧, 解題를 참조할 것.

다. △ㅇ등이 나타나고 重綴등 正書法의 特徵이 尊經閣本 呂氏鄕約과 비슷하다. 이의 18世紀 重刊本으로 믿어지는 한 책이 1977年 原文社에서 華山文庫本 呂氏鄕約과 함께 影印되었다.

49. 村 家 救 急 方

金正國이 己卯士禍(1519, 中宗 14)로 罷職되어 高陽郡에서 지날 때, 民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藥材로 治療할 수 있는 方文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原刊은 金正國이 復職되어 全羅道觀察使로 가서 1538年(中宗 33) 南原에서 刊行한 것이다. 현재 原刊本은 없고, 咸鏡道 咸興에서 刊行된 重刊本이 誠巖文庫 所藏으로 전한다. 刊年은 책의 保存狀態로 말미암아 알 길이 없으나, 觀察使 李友閔등 列銜이 있는 점에서 李友閔의 觀察使 在任期間인 1971年(宣祖 4)부터 1972年 사이로 추정된다.

책의 內容은 132項의 方文을 수록한 것이나, 目錄에 이어서 「鄕名」이라 하여 方文에 나오는 本草, 곧 藥材 128종을 들고 雙行으로 借字와 한글로써 固有語를 표기하였다.[40] 이러한 固有語의 表記는 本文 안에서도 4종이 있는데, 이것이 國語史의 資料가 된다. 즉, 借字에 의한 表記는 吏讀資料로서, 한글表記는 旁點과 △ㅇ이 폐기된 中世語末期 資料로서 價値를 갖는다. 특히 한글表記는 t口蓋音化와 語頭의 k-口蓋音化(지름<기름 油)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原刊인 全羅方言이나 重刊인 咸鏡方言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요컨대 口蓋音化를 보이는 最初의 文獻이 된다.

50. 時 用 鄕 樂 譜

編者未詳인 樂譜인데, 刊年은 16世紀 初期인 中宗 때가 아닐까 한다. 內容은 井間樂譜와 함께 納氏歌, 儒林歌, 橫殺門, 思母曲 등 26曲의 歌詞로 되어 있다. 이 歌詞중 橫殺門, 儺禮歌, 維鳩曲 등 15曲은 이 책의 發見으로 비로서 알려진 노래들이다.

이 책은 현재 通文館所藏으로 보존되어 전한다. 國樂硏究에 귀중한 資料일 뿐아니라, 한글歌詞로써 國語學과 國文學의 중요한 硏究資料가 되기 때문에, 1954年 延大東方學硏究所에서 國故叢刊第二로 影印하였는데, 이를 1973年 大提閣에서 다시 複製한 바 있다.

51. 簡 易 辟 瘟 方

1524年(中宗 19)에 關西地方에 癘疾이 크게 전염하자, 中宗의 命令으로 金順蒙 등이 그 病

(40) 이 책과 鄕名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安秉禧, 村家救急方의 鄕名에 대하여, 언어학 3(1978).

에 대한 治療法과 豫防法을 간단히 설명하여 이 책을 만든 것이다. 漢文의 原文에 諺解를 붙여 이듬해인 1525年에 刊行하였다.

현재 原刊本은 전하지 않고, 1578年(宣祖 11)의 乙亥字로 된 重刊本이 전한다. 高麗大圖書館과 同 晩松文庫의 소장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1578年의 內賜本이다. 前者를 底本으로 한 影印本이 民族文化 7號(高麗大 民族文化硏究所 1973)에 收錄되어 있다. 日本의 宮內廳에도 同一本이 있으나, 牛馬羊猪染疫治療方과 合綴되어 있다. 요컨대 이 책은 16世紀의 資料로서 旁點이 없는 活字本이다.

52. 訓 蒙 字 會

崔世珍이 지은 漢字敎科書다. 당시 널리 사용되던 入門書인 千字文과 類合에는 抽象的인 槪念을 나타내는 漢字가 많다고 하여, 具體的인 事物을 나타내는 漢字 3,600字를 수록하고 한글로 새김과 字音을 달아서 만든 책이다. 3권 1책으로, 卷上·中에는 實物表示의 漢字, 卷下에는 抽象的인 槪念表示의 漢字를 수록하되, 4字씩 韻을 맞추어 配列한 것이다. 原刊은 1527年(中宗 22)에 이룩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의 많은 重刊本이 있다.

原刊本은 日本 京都의 叡山文庫所藏의 乙亥字本이다. 壬辰亂 이전의 刊本은 刊年未詳版인 啓明大 徐在克교수, 東京大總合圖書館, 日本東京의 尊經閣文庫의 所藏本과 1559年(明宗 14 平安道祥原郡)版인 日本의 內閣文庫 所藏本이 있다. 이들 사이에는 조금씩 文字의 出入이 있으므로 資料로 이용할 때는 注意를 요한다. 이중 原刊本과 東京大學本은 1971年 檀國大 東洋學硏究所, 尊經閣本은 한글 138~40號(1966~67)에 影印되었다. 그밖에 이들을 다시 影印한 책과, 壬辰亂 이후의 刊本을 影印한 것도 있다.[41]

訓蒙字會는 풍부한 語彙와 漢字音으로써 國語史 資料로 중요한 文獻이지만, 卷頭의 凡例에 나오는 한글에 관한 간단한 解說로써 國語學史 硏究에 크게 이바지되고 있다.

53. 牛馬羊猪染疫治療方

1541年(中宗 36) 봄 平安道에 牛疾이 크게 유행하게 되자, 王命으로 家畜의 傳染病과 治療方文을 모아서 그해 刊行한 책이다. 體裁가 漢文의 本文 뒤에 吏讀와 한글로 된 두 가지 飜譯을 실은 것이 특이하다.

현재 日本의 한 個人(岡田信利) 소장本이 原刊本으로 추정되고 있다. 活字本이고 한글에

(41) 訓蒙字會의 刊本과 內容에 대한 綜合的인 硏究는 다음 著書에 나타나 있다.
李基文, 訓蒙字會硏究, 서울 1971.

는 旁點도 있다고 한다.[42] 異本은 1578年版 簡易辟瘟方에 合綴된 책이다. 版式과 活字, 無旁點인 한글表記까지도 일치하므로, 1578年의 重刊本으로 믿어진다. 그밖에도 1636年(仁祖 14), 1644年(仁祖 22)의 重刊本이 있는데, 모두 1578年版의 覆刻이다. 1636年의 海州版은 일사文庫소장인데, △ㅇ을 제외하면 1578年版과 글 內容에는 큰 差가 없다.

54. 分門瘟疫易解方

1542年(中宗 37) 金安國 등이 王命에 따라 流行의 瘟疫에 대한 治療法을 분류하여 편찬하고 諺解를 덧붙여 刊行한 책이다.

原刊本으로 보이는 乙亥字本의 落張 몇장(故黃義敦씨 소장)이 있었다고 하나,[43] 현재 木板本만이 일사文庫에 전한다. 原刊本의 覆刻으로, 16世紀末의 刊本이 아닌가 한다. 旁點, △ㅇ등이 모두 사용되었다.

55. 論語大文口訣

論語의 大文을 발췌하여 한글로 口訣을 단 책이다. 7권 1책으로 乙亥字로 되어 있다. 旁點은 없으나, △ㅇ은 사용되고 있다. 16世紀 中葉이거나 그 以後의 資料다. 口訣은 校正聽의 論語諺解에 나오는 口訣과 差異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곳은 借字로써 朱墨 校正되어 있다. 따라서 論語諺解에 앞서는 資料가 된다. 國語史硏究뿐 아니라, 經書硏究에도 이용될 수 있는 資料다. 高麗大圖書館 華山文庫소장이다.

56. 南華眞經大文口訣

唐代이후로 莊子를 南華眞人, 그의 책 莊子를 南華眞經이라 하는데, 이 책은 南華眞經의 大文에 한글로 口訣을 단 것이다. 乙亥字本으로서, △ㅇ등이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各自並書는 보이지 않는다. 16世紀 中葉의 刊本이라 생각되는데, 현재 卷5, 6 1책이 誠巖文庫에 전한다.

다음의 句解南華眞經口訣과는 같은 大文이라도 口訣이 다르고 卷次도 같지 않다. 예컨대, 「刻意篇」이 이 책은 卷6, 句解南華眞經口訣은 卷5에 실려있다. 國語史 資料일 뿐 아니라, 莊子硏究에도 이용될 수 있는 資料다.

---

(42) 이 책의 異本과 吏讀에 대한 硏究는 다음을 참조할 것.
安秉禧, 養鷺經驗撮要와 牛疫方의 吏讀의 硏究, 東洋學 7 (1977).

(43) 三木榮, 朝鮮醫書誌(增補版), 大阪 1973, pp.70~72 참조.

57. 句解南華眞經口訣

句解南華眞經의 大文에 한글로 口訣을 단 책이다. 책의 內容이, 위의 南華眞經大文口訣이 大文만을 수록한 책인 데 대하여, 이 책은 책 이름과 같이 夾註까지 가지고 있음이 다르다. 原文의 漢字는 甲寅字이나, 마멸이 심한 편이므로 16世紀中葉 내지 以後의 刊本으로 믿어진다. 口訣은 墨等 안에 陰刻되어 있다. 各自並書와 旁點은 보이지 않으나, △ㅇ은 나타난다. 모두 10권인데, 卷 1,2와 7~10(高麗大圖書館 晩松文庫), 3(서울大圖書館 가람文庫), 10(國立中央圖書館), 5~7, 9, 10(誠巖文庫)이 전한다. 특히 誠巖文庫의 卷7, 9, 10은 退溪李滉의 手澤本이다. 近代의 覆刻本도 있는데, △ㅇ이 있으나 混亂이 심하다.

58. 小學集說口訣

漢文으로 된 책인 小學集說의 欄上에 大文의 口訣을 한글로 印刷한 乙亥字本이다. 欄上까지 乙亥字로 된 특이한 책이다. 刊年未詳이나, 늦어도 16世紀 中葉의 刊本으로 믿어진다. 15世紀 諺解書의 口訣表記와 마찬가지로 旁點은 없으나, △ㅇ등이 정확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卷6 1책이 誠巖文庫에 전한다. 그 覆刻本도 있는데, 玉山書院에 卷 5,6, 獨樂堂에 卷 3,4가 그것이다. 이들의 卷次가 校正聽 小學諺解와 같으나, 口訣은 다른 점에서 經學硏究에도 이용될 수 있다.

59. 禮記集說大全口訣

漢文으로 된 책인 禮記集說大全의 欄上에 大文의 口訣을 한글로 印刷한 책이다. 刊年은 未詳이나, 16世紀 中葉의 刊本이 아닌가 한다. 口訣이므로 旁點은 없으나, △은 정확히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卷 1,4,5,17,19(이상 延大圖書館), 1~3, 19, 20(高麗大圖書館 晩松文庫)과 卷 10(所在不明) 등이 전한다.

그런데 卷 13~17 1책(서울大圖書館 가람文庫)은 紙質 등으로 보아 周易傳義集說口訣과 같은 時期, 곧 15世紀 中葉의 刊本으로 보인다. 口訣이 있는 本文을 原册과 별도로 印刷한 것까지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책의 口訣도 15世紀 中葉의 것이 아닌가 한다.

60. 父母恩重經諺解

父母恩重經은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略稱이다. 우리나라에 널리 유포된 僞經의 하나로서,

父母, 특히 어머니의 恩惠가 무거움을 설명하고 報恩과 滅罪의 方法을 밝힌 책이다. 이것을 한글로 諺解만 덧붙인 것이 父母恩重經이다. 飜譯과 刊行에 관한 記錄이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最古本이 1553年(明宗 8) 京畿長端 華藏寺版이므로[44] 늦어도 16世紀 中葉에는 飜譯하여 刊行된 것이다.

最古本인 위의 華藏寺版은 현재 볼 수 없고, 國內 現存本 중에서는 1563年(明宗 18) 全羅道 松廣寺 刊行의 책이 가장 오래다. 後刷本인데, 서울大圖書館 일사文庫와 高麗大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위 華藏寺版의 書影과의 對照로는 아무런 差異가 없다. 따라서 이 책은 華藏寺版이나, 그에 앞선 原刊本의 覆刻이라 하겠다. △ㅇ은 혼란되지만 나타나고, 旁點이 없다. 旁點表記가 止揚된 初期文獻인 것이다. 이밖에 壬辰亂 이전의 刊本이 數種있다. 覆刻本으로 보이는데, 版式과 言語事實에 별다른 差異가 없다. 즉, 1564年(明宗 19) 黃海道 明葉寺版, 1567年(明宗 22) 恩津 雙溪寺版, 1592年(宣祖 25) 豐基 喜方寺版, 刊年未詳의 全州 安心寺版이 그것이다. 喜方寺版과 安心寺版은 近者의 影出本(後者는 1932年 故韓龍雲씨에 의하여 印出)이 널리 유포되어 있다.

61.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六字禪定으로 略稱되는데, 觀世音菩薩의 六字大明王眞言인 「옴마니반메훔」(唵嘛呢叭彌吽)을 암송함으로써 禪定을 닦는 行法을 설명한 책이다. 책끝의 「嘉靖 39年 (1560) 5月日 肅川府館北開板藏于 寺」란 刊記와 無記名의 跋文에 의하면, 原典이 당시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湖南後人 遁世堂이 中國에서 구하여 온 것을 1560年(明宗 15) 平安道肅川府(현재 平安南道 平原郡의 肅川)에서 刊行한 것이라 한다. 原典에 한글로 口訣을 달고 諺解를 한 책이나, 體裁가 특이하다. 즉 漢字로 된 原典의 本文에 한글로 口訣을 단 行과 한글로 漢字讀音과 口訣을 쓴 行을 짝진 形式이다.

현재 이 책은 國立中央圖書館에만 所藏된 唯一本이다. 16世紀 中葉 平安道에서 처음으로 刊行된 資料로서 소중하다. 특히 旁點이 완전히 폐기된 文獻인 점에서 初期 無旁點 文獻의 하나인 것이다. 이밖에 漢字音, 形態論 등에 있어서도 흥미있는 資料를 제공하는 文獻이다.[45]

62. 眞　言　集

여러 陁羅尼를 梵字로 적고 한글과 漢字로 音譯한 책이다. 五大眞言과 같은 形式의 책이

(44) 小倉進平, 增訂朝鮮語學史, 東京 1940, p. 269 참조. 현재 1553年版의 所在는 不明으로 보인다.
(45) 이에 대한 자세한 紹介는 다음을 참조할 것.
安秉禧, 中世語資料 六字神呪에 대하여, 李崇寧先生古稀記念 國語國文學論叢, 서울 1978.

나, 이 책에서는 한글音譯, 漢字音譯, 梵字의 順序로 된 것이 다르다. 內容은 佛頂心經, 諺本, 悉曇章, 隨求陁羅尼를 실은 다음 結手文등의 여러가지 眞言을 收錄한 것이다. 卷末의 大禪師雪嵒의 跋에 의하면 慧澄, 印珠 등의 懇請으로 雪嵒이 校正하고 執筆하였고, 刊記에 의하면 1569年(宣祖 2) 全羅道 安心寺에서 刊行한 것이다.

原刊本은 널리 流布되어 있다. 刊年이 壬辰亂 直前이므로, 壬辰亂 이후의 重刊本은 있으나 이전의 重刊本은 없다. 跋文에서 雪嵒은, 모두 古法대로 쓰고 自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 眞言의 한글音譯은 다른 眞言音譯과 꼭같지 않다. 또한 한글字母의 用法을 설명한 卷頭의 諺本과 梵字를 한글로 설명한 悉曇章도 특이한 資料다.

63. 禪 家 龜 鑑

休靜(號 淸虛, 西山)의 漢文本 禪家龜鑑을 諺解한 책이다. 漢文本은 休靜의 序文이 1564年(明宗)에 되었으므로 그해에 著述이 完成된 것이나, 그 刊行은 惟政의 跋文年代인 1579年(宣祖 12)의 일이다. 그런데 諺解本의 原刊은 刊記인 「隆慶 3年(1569, 宣祖 2) 己巳 5月日妙香山開刊」에 의하여 1569年의 일이므로, 諺解의 原典은 漢文本의 刊本이 아니라 原稿本이다. 실지로 諺解本(上下 2권)의 原文과 漢文本의 刊本(不分卷)과는 상당한 差異가 있다. 諺解를 한 사람은 原刊本 末尾의 刊語에 金華道人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法名이 義天으로서 위의 惟政跋에 의하면 漢文本의 校正에도 참여한 僧侶이다.[46]

原刊本은 서울大圖書館과 李基文교수의 所藏이다. 原刊本에는 若干의 誤字도 있어서 善修(號 浮休, 諡號 弘覺登階)의 校正으로 1610年(光海 2) 全羅道에서 重刊되었다. 이 重刊本의 册板은 아직도 順天의 松廣寺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刷出한 책이 널리 유포되었다.

64. 七 大 萬 法

著者 未詳의 佛書로서, 眞如世界·三身如來·惺寂等持의 3章으로 되어 있다. 七大란 地·水·火·風·空·見·識을 가리키는데, 이들의 調和로 宇宙의 萬物이 形成되며 그것이 곧 佛性임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전하는 책은 國漢混用文으로만 되어 있고 漢文이 없으므로, 諺解本이라 할 수 없다. 原刊은 刊記에 의하면 1569年(宣祖 2) 慶尙道豐基의 喜方寺(池叱方寺)에서 행해졌다. 그 이후의 重刊이 없다.

이 책은 현재 後刷本이 많이 流布되어 있다. 旁點이 없고, △ㅇ이 쓰였으나 混亂이 있다. 1974年 古典語文學精粹(景仁文化社刊)에 影印으로 수록되었다.

(46) 禪家龜鑑과 譯者 金華道人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安秉禧, 臺灣公藏의 韓國本에 대하여, 韓國學報 1 (1975), pp. 117~9.

65. 念　佛　作　法

念佛儀式에 쓰이는 各種 眞言, 偈頌, 發願文 등을 수록한 책이다. 編者未詳이나, 懶翁和尙發願文, 義相和尙西方歌 등이 실려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하는 책(成均館大圖書館소장)은 「隆慶 6年壬申(1572, 宣祖 5) 4月開刊於千佛山開天寺云云」의 刊記가 있다. 原刊이기보다는 覆刻本이 아닌가 한다.

모두 漢文으로 되어 있으나, 義相和尙西方歌는 國漢文인 景幾體歌로서 國文學과 國語學의 硏究資料가 된다.

66. 千　字　文

中國 梁나라 周興嗣가 지은 千字文의 漢字에 한글로 새김과 字音을 단 漢字入門書다. 언제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나 16世紀 後半부터 地方의 刊本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책이 이루어진 年代는 훨씬 빠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最古의 千字文은 1575年(宣祖 8) 光州에서 刊行된 책이다. 東京大學에 所藏되어 있다. 그 다음이 石峯千字文으로 알려진 1583年(宣祖 16)의 책이다. 千字文이 漢字의 글씨敎本으로도 쓰였기 때문에 石峯韓濩의 글씨로 中央에서 刊行한 것이다. 後代의 千字文은 거의 이것을 重刊한 책들이다. 原刊本의 內賜本이 전하고 있다고 하나,[47] 公開된 책 중에서는 金東旭교수 所藏本이 原刊本에 가까운 듯하다. 그밖에 壬辰亂前의 刊本으로 보이는 것이 日本의 內閣文庫에 2種이 있다. 이밖에 光州版과 性格이 비슷한 16世紀 刊本이 日本 東京의 大東急記念文庫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光州版과 內閣文庫의 한 책이 1973年 檀國大東洋學硏究所에서 影印으로 刊行되었다.[48]

이 책은 過去 漢字敎育의 基本書였기 때문에, 단순한 國語史資料일 뿐아니라 文字敎育과 漢字音傳承의 觀點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資料다.

67. 新　增　類　合

우리나라 傳來의 漢字入門書인 類合에 요긴한 漢字가 많이 빠지고 內容이 나쁘다고 하여

(47) 內賜된 原刊本에 대하여는 趙炳舜씨에 의한다. 현재 影印된 어떠한 千字文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한다.

(48) 現存千字文의 異本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李基文, 解題, 千字文(影印本. 檀國大東洋學硏究所 1973).
安秉禧, 內閣文庫所藏 石峰千字文에 대하여, 書誌學 6 (1974).
藤本幸夫, 朝鮮「千字文」とその地方性, 國語國文(京都大學) 46-4 (1977).

柳希春이 增補하고 修正한 책이다. 2권 1책인데, 卷上에 數目, 天文, 衆色 등 24項目 1,000字, 卷下에 心術, 動止, 事物의 3項目 2,000字를 수록하였는데, 4字씩 韻을 맞추어 句를 만들고 다시 두 句씩 짝을 지었다. 각 漢字에는 訓과 音을 달고, 圈點으로써 漢字의 四聲을 표기하였다.

柳希春의 日記에 의하면, 最初로 刊行된 것은 1574年(宣祖 7) 黃海道海州에서의 일이다. 그러나 修補하여 序文(1576年 3月 日丙午)과 跋文(同年 10月初 4日)을 붙여 宣祖께 進上하여 中央에서 刊行된 것은 1576年이라 생각된다.[49] 현재 전하는 책은 1576年版이거나 그 系統으로 보인다. 가장 오래되고 좋은 책은 木活字로 된 일사文庫本이다. 그러나 이 책은 卷上뿐이고, 그것도 張19 後面부터 남아 있다. 같은 木活字로 되었으면서 序跋까지 갖춘 完本이 金東旭교수 所藏으로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일사本에 비하면 印面의 着墨도 나쁘고, 脫字가 있어서 補寫된 部分도 있다. 壬辰亂 以前의 木版本은 日本의 東洋文庫, 尊經閣文庫, 大野晋(白鳥庫吉舊藏)교수 所藏本이 알려져 있다. 이들은 印出의 先後로 약간의 差異(版心의 張次 등)가 있으나, 同一 版本이다. 黑口에 「全羅道, 全羅道南平」이란 陰刻이 있으므로 全羅道 南平縣에서 原刊本을 覆刻한 것이라 생각된다. 近代의 覆刻本은 「戊寅 3月日海印寺開刊」이란 刊記를 갖는 책이다. 高麗大圖書館所藏이다. 序跋까지 가지고 있으나, 조잡한 覆刻本이다. 刊記의 戊寅은 18世紀 前後가 아닐까 한다.

柳希春이 이 책의 編纂을 위하여 매우 힘을 들였기 때문에 字釋에는 흥미 있는 例가 있다. 사용된 한글에는 旁點과 ㆆ이 폐기되고, △은 混亂을 보인다. 大字인 漢字의 四聲表記는 千字文과 같이 左上과 右上의 圈點으로서 각각 上聲과 去聲을 표시하고, 平聲과 入聲을 표시하지 않는다. 入聲은 韻尾로써 平聲과 구별되므로 간편한 方法이다. 新增類合은 金東旭선생 所藏本을 1972年 東洋學硏究所에서 影印하여 刊行하였다.[50]

68. 百 聯 抄 解

初學者에게 漢詩를 가르치기 위하여 七言古詩 중에서 聯句 100개를 뽑아서 한글로 解釋을 덧붙인 책이다. 聯句의 漢字마다 千字文과 같이 한글로 訓과 音을 단 뒤에 그 句의 翻譯을 하였는데, 金麟厚의 編纂이라고 전하여진다. 그러나 原刊年代등이 명확하지 않다.

壬辰亂 이전의 刊本은 日本東京大學에 소장되어 있다.[51] 刊記가 없다. 旁點은 없으나,

(49) 新增類合도 千字文과 같이 글씨敎本으로 사용되었으므로, 版下를 쓴 사람은 名筆을 고르게 되었는데, 中央, 즉 校書館의 刊本은 礪城尉宋寅의 글씨로 되었다. 그의 文集 頤庵先生遺稿의 卷頭의 木刻書法 目錄에 「新增類合 刊校書館」이라 있다.

(50) 影印本에 실린 安秉禧의 解題에 이책의 자세한 紹介가 있다.

(51) 東京大學本은 實査하지 못하고 다음에 달할 影印本과 다음 論著에 의하여 설명한다.
小倉進平, 增訂朝鮮語學史, 東京 1949, pp. 297~8(書影 9b)
筧百五里, 百聯抄解の硏究, 國語と國文學 6卷 1號(1929), pp. 95~130(書影 1a, 4b, 5a)

△ㅇ은 사용되었다. △이 상당히 큰 混亂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特徵은 漢字의 새김이다. 즉, 「不 안득불(4b), 未 아톨미(1a, 5a), 上 마디상(5a)」과 같이 光州版 千字文과 큰 一致를 보인다. 그러므로 長城 出身인 金麟厚의 原作일 可能性이 있다. 1576年(宣祖 9) 刊行의 攷事撮要의 册板目錄에 의하면, 平壤과 長興(全羅道)에 百聯抄解의 册板이 있으므로 이 책이 혹 16世紀 中葉이후의 長興版이 아닌가 한다.

國內에는 壬辰亂 이후의 重刊本이 數種 전한다. 長城의 筆巖書院, 順天의 松廣寺에는 아직도 册板이 보관되어 있다. 이들은, 위의 책과는 달리 漢字의 새김을 없애고 漢詩 聯句의 順序를 다르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도 聯句의 順序와 翻譯이 같지 않다. 東京大學本은 1973年 國文學硏究(曉星女子大學) 4輯에 影印되었고, 壬辰亂 이후의 刊記未詳의 한 책이 1960年 大邱大學에서 影印으로 출판되었다.

69. 誡初心學人文·發心修行章·野雲自警序

3권을 合本한 책인데, 모두 우리나라 高僧의 著述이다. 誡初心學人文은 曹溪宗의 開祖인 知訥(普照國師, 號 牧牛子)이 佛門의 初心者가 알아야 할 凡節과 마음가짐을 설명한 책이고, 發心修行章(略稱：發心文)은 元曉가 出家修道의 必要性과 그 方法과 決心을 논한 책이고, 野雲自警序(略稱：野雲自警, 自警文)는 高麗忠烈王代의 僧侶 覺牛(號 野雲, 夢岩老人)가 行者로서 스스로 경계하여야 할 內容을 10門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座右銘이므로, 3권을 합쳐 初發心自警이라 하여 佛家 初入門者 必讀의 책이 되어 있다.

壬辰亂 以前에 原典의 本文에 한글로 讀音과 口訣을 달고 諺解한 책이 2종 있다. 1577年(宣祖 10) 全羅道 松廣寺(刊記：萬曆 5年 丁丑夏 全羅道順川地曹溪山松廣寺留板)와 1583年 京畿道龍仁 瑞峯寺(刊記：萬曆 10(11의 잘못)年癸未 8月日 京畿道龍仁光敎山瑞峯寺開)에서 刊行한 것이 그것이다. 前者는 흔한 책이나, 後者는 매우 드물어서 嶺南大圖書館과 日本 東京大學의 小倉進平 舊藏本이 전할 뿐이다. 이들은 독립하여 諺解된 듯하여, 原典 大文의 分節, 諺解, 漢字讀音의 表記 등이 다르다.

松廣寺版은 15世紀末 成宗代의 佛經諺解와 비슷한 文體를 보여주지만, 刊年에 따라 16世紀末의 資料로 다루어야 한다. 실지로 이 책에는 旁點表記가 있으나 극히 形式的이고, △의 使用도 혼란되어 있다. 특이하게도 口蓋音化가 나타난다. 固有語는 例가 2개뿐이나, 漢字讀音의 表記에서는 「디댜뎌」등이 「지쟈져」등과 변별되지 못하고 있다. 中央에서 刊行된 책에는 이보다 훨씬 後代의 文獻에도 口蓋音化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책의 口蓋音化는 全羅道方言의 그것을 反映한다고 하겠다. 瑞峯寺版은 旁點과 ㅇ이 없고 口蓋音化도 나타나지 않는다. 諺解의 語彙와 文法도 松廣寺版과는 달리 近代語의 모습에 가까와져 있다.[52] 아직

(52) 安秉禧, 壬辰亂直前 國語史資料에 관한 二三問題에 대하여, 震檀學報 33號 (1972) 참조.

이들은 完帙의 影印本이 없다. 松廣寺版의 誡初心學人文과 發心修行章이 1978年 명지어문학(明知大 國語國文學科) 10호에 影印되었을 뿐(松廣寺版의 野雲自警序도 同誌 次號에 影印豫定이라 한다)이다.

70. 重 刊 警 民 編

1519年(中宗 14) 金正國이 黃海道觀察使로 있으면서 百姓을 경계하기 위하여 편찬하여 刊行한 책이다. 內容은 人倫의 基本에 관계되기 쉬운 것을 父母, 夫妻, 兄弟姉妹 등 13條目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현재 原刊本은 없고, 1579年(宣祖 12)과 近代의 重刊本만 전한다. 1579年版은 慶尙道觀察使 許曄이 君上이란 1條目을 첫머리에 덧붙여 慶州, 尙州, 晋州, 靑松에서 刊行하였다. 이중 晋州에서 刊行된 책이 日本의 東京敎育大學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近代의 重刊本은 1658年(孝宗 9) 李厚源이 古靈陳囊의 仙居觀論文 등을 添錄하여 刊行한 것을 비롯하여 數種이 있으나, 1579年版을 전혀 참고하지 않은 것이다.

1579年版은 條目을 단위로 原文에 借字로 口訣을 달고 한글만으로 諺解하였다. 旁點은 폐기되었고 ㆆ은 終聲에만 쓰였으며 △은 두어 例만 있을 뿐이다. 1978年 東洋學硏究所에서 二倫行實圖와 함께 影印된 일이 있다.[53]

71. 農 事 直 說

世宗때 王命으로 各道觀察使가 그 地方의 老農에게서 採錄하여 報告한 우리나라의 農事法을 편찬한 책이다. 현재 原刊本은 전하지 않고, 衿陽雜錄과의 合本이 있다. 1581年(宣祖 14)의 內賜本(서울大圖書館, 日本國會圖書館등)이 전하므로, 1581年의 重刊本이 현재로는 가장 빠른 時期의 刊本이다. 이 刊本은 國內外에 널리 소장되어 있다. 穀名의 吏讀表記가 國語史資料로 이용되고 있는데, 한글表記가 나타나는 衿陽雜錄이 合綴되어 있으므로 여기 설명하여 둔다.

72. 小 學 諺 解

校正廳에서 宣祖의 命令으로 小學을 諺解하여 刊行한 책이다. 6권 4책의 活字本이다. 책머리에 凡例, 끝에 1587年(宣祖 20)의 李山海跋과 李山海를 위시한 刊行關與 官員의 名單이 있어서 編纂方式과 校正廳의 規模 등을 알려준다. 刊年은 跋文의 年代에 따르면 1587年

(53) 影印本의 安秉禧의 解題를 참조.

이 되지만, 內賜本의 年代에 따르면 1588年이 된다. 慣例에 따라 1588年으로 刊年을 삼기로 한다.

原刊本의 全帙은 安東의 陶山書院(1588年 1月 內賜本)에 있고, 零本의 所藏은 더러 있다. 覆刻本도 零本으로 전하는데, 壬辰亂 前後의 책으로 보인다. 이 資料는 中世語 末期의 것으로서, 旁點과 △ㅇ까지 갖는 점에서 특이하다. 原刊本은 1974年 大提閣에서 影印되었다.

73. 大學諺解·中庸諺解·論語諺解·孟子諺解

宣祖의 命令에 따라 校正廳에서 행한 四書三經 諺解事業으로 刊行된 책이다. 모두 活字本으로, 大學諺解와 中庸諺解가 각각 不分卷 1책, 論語諺解가 4권 4책, 孟子諺解가 14권 7책이다. 編纂과 刊行에 관한 記錄이 이들 책에는 없다. 그러나 小學諺解의 凡例와 跋 및 關與官員 列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실지로 諺解의 方式과 책의 形態가 小學諺解와 완전히 같다. 刊年은 內賜年代에 따라 1590年(宣祖 23, 萬曆 18)으로 추정된다.

校正廳에서 같이 刊行된 小學諺解와는 달리 覆刻된 일이 없는 듯하여, 현재 原刊本만 전하고 있다. 陶山書院에 全帙이 소장되어 있다. 1590年의 內賜本인데, 孟子諺解만 책 첫머리 缺損으로 內賜記가 없다. 그러나 日本의 內閣文庫에 같은 時期의 安東鄕校에 대한 內賜本의 寫本이 있으므로, 陶山書院의 孟子諺解도 같은 內賜本이다. 이들 책은 近代 以後의 四書諺解의 定本으로 된 점에서 儒學硏究에도 중요하지만, 孝經諺解와 함께 原刊本으로서 旁點을 갖는 最後의 文獻으로 國語史資料로도 귀중하다. 混亂이 있으나, △ㅇ도 사용되어 있다. 이들은 1974年 漢陽大 國學硏究院에서 影印되었고,[54] 이어 1976年 大提閣에서 다시 影印으로 刊行되었다.

74. 孝　經　諺　解

孝經大義의 本文에 讀音과 口訣을 달고서 諺解한 책이다. 1589年(宣祖 22)의 柳成龍跋에 의하면 宣祖의 命令에 따라서 孝經大義와 함께 刊行한 것이라 한다. 跋文에 明記는 없으나 諺解의 樣式과 版式, 및 刊行時期 등이 校正廳의 四書諺解와 일치하므로 이 책도 校正廳에서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刊年은 內賜記에 따라서 1590年(宣祖 23)으로 잡는데 四書諺解와 같은 해다. 다만 7月인 四書諺解보다 2個月 늦은 9月에 內賜된 것이 다르다.

原刊本은 日本의 尊經閣文庫(內賜本)에 완전한 狀態로 전하고, 國內에도 있으나 狀態가 좋지 않다. 위의 四書諺解와 마찬가지로 旁點과 △ㅇ이 나타난다. 尊經閣文庫소장本은 1963年 朝鮮學報 27輯에 影印되었다.[55]

(54) 影印本에는 李崇寧 선생의 解題가 있다. 참조를 바란다.
(55) 田川孝三, 庚辰字本孝經諺解와 小學諺解, 朝鮮學報 27輯 (1963) 참조.

Ⅲ. 餘 言

지금까지 한글創制로부터 16世紀末까지의 中世語 時期에 이루어진 典籍 중에서 한글이 나타나는 것은 차례로 설명하여 왔다. 이 가운데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資料도 있고, 또 이미 알려진 것이지만 새롭게 다루어진 資料도 없지 않다. 그러나 未熟하고 不徹底한 調査로 記述의 誤謬와 資料의 漏落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補完을 위하여 大方의 叱正을 바라마지 않는다.

그런데 資料의 漏落에는 意圖的인 것이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宣祖, 松江 鄭澈의 慈堂, 鶴峯 金誠一의 內簡과 楊州 蘆原의 靈碑의 한글刻字가 그것이다. 이들은 資料로서의 眞僞問題도 있지만, 量과 質에서 國語史資料로 特記할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이 밖에 普雨의 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問答, 退溪李滉의 陶山十二曲이 있다. 이들의 原作年代는 中世語 時期에 해당한다. 그러나 現存하는 이들의 刊本이 壬辰亂 이전이라는 데 대한 確信이 없으므로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中世語 資料로서의 年代와 重要性은 認識하면서도 不可避한 事由로 제외된 것이 있다.

먼저 數年前에 發見되어 忠北大學校博物館에 收藏된 淸州 蔡氏墓 出土의 內簡이 있다. 우리도 收藏當局의 好意로 實物을 볼 수 있었는데, 상당한 分量이어서 중요한 資料임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면밀한 調査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 日本에 있는 能淨一切眼疾病陀羅尼經이란 한글寫經이 있다. 漢字로 된 原文과 그 讀音인 한글이 짝진 行으로 되었는데, 漢字讀音表記에 사용된 한글에는 △ㅇ과 旁點은 물론이고 ㅸ까지 나타난다.(56) 漢字音이 東國正韻에 따르지 않으면서 ㅸ이 쓰인 것은 特異한 資料임을 말한다. 그러나 資料가 日本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調査가 불가능하여 後日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요컨대 이들 資料에 대하여는 완벽한 報告書나 면밀한 實査로써 우리의 目錄에 追加되어 記述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貴重한 資料를 기꺼이 閱覽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모로 便宜를 提供하여 주신 公私의 收藏家의 厚意에 의한다. 이 글이 國語史硏究에 조금이라도 寄與가 된다면, 오로지 그분들께 致謝를 드려야 할 것이다. 이에 特記하여 그분들께 고마운 뜻을 표하고자 한다.

---

(56) 이 한글 寫經의 紹介는 다음 글로써 되었다. 그러나, 國語史의 觀點은 거의 無視되었으므로, 새로운 紹介가 요망된다.
權喜耕, 日本에 遺存하는 李朝寫經, 考古美術 134 (1977).